

2금융 대출 죄기 서민들은 어찌나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총당금 상향
한계차주 저금리로 내모는 셈
사실상 총량규제로 '폭탄 돌리기'
연체시 원금 우선 상환 방안 검토

상호금융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회의는 14일(화)에, 카드사 및 캐피탈사 간담회는 15일(수)에 각각 열렸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일 단위로 보고받고, 증가율을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한계차주를 결국 사금융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는 고금리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 없는 총량 규제만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면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한계차주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와 대책이 없는 방안은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대출 확대를 통한 점유율 경쟁을 과도하게 벌이고 있어 금리 인상 시점에서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취약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계차주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체시 원금부터 갚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원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어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장효찬·서지화·박규준 기자 js62@

가계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풍선 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출구없는 대출 조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인까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편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총당금을 50% 더 쌓도록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예초에는 내년 1월부터 고금리대출에 대해 총당금 20%를 더 쌓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저축은행에 총당금을 더 쌓으란 것은 대출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정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최고경영자(CEO) 가계대출 담당 임원을 연이어 소집하고 있다.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간담회는 13일(월)·16일(목)에, 보험사 및

11.3 약발 다 했나...강남 재건축 다시 꿈틀

19대 대선 D-50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남은 20일 오전 서울 중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편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움직임 호재
지난달 매매가 3개월 만에 상승세
규제강화 가능성에 관망세 확산도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단위: %)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강남구	-0.50	-0.74	-0.21	0.63
강동구	-1.09	-1.92	0.89	0.22
서초구	-0.71	-0.20	-0.05	0.39
송파구	-1.86	-0.98	0.15	1.61

11.3 대책으로 세 달 가까이 가격이 꺼졌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4구의 2월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0.24% 오르며 4곳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4곳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건 지난 11월 이후 처음이다. 송파구가 1.6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강남구 0.63%, 서초구 0.39%, 강동구 0.22%로 뒤를 이었다.

4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마이너스를 보였다. 전매제한과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11.3 대책에 단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봉쇄되면서 11월 한 달 송파구(-1.86%)가 가장 큰 폭 하락했고, 12월에는 강동구(-1.92%)로 이 같은 분위기가 옮겨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반등 조짐은 울 울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와 송

파구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 등의 매매가가 살아나서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을 9주 연속 떠받쳤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11.3 대책에 꺾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유일한 동력이 된 셈이다. 이달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11.3 대책의 약제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는 호재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며 "지난달 강남 재건축시장은 11.3 직전의 고점에 가까워져 작년 동기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국내 금리가 기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지만 이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정치권의 규제강화 가능성에 앞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알립니다

제4회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불확실성시대' 채권투자 해법 제시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서

이투데이가 23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300홀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 채권투자의 핵심 전략을 찾는 프리미엄 투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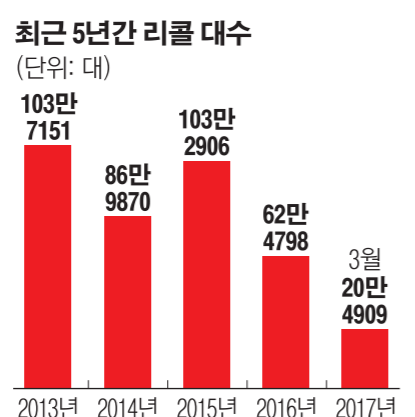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지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과 함께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불안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의 수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채권 애널리스트 1세대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비롯, 다년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박종연 NH투자증권 FICC리서치센터 채권전략팀장이 강연자로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승철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장이 통안채 발행과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 이주섭 기획재정부 국제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불안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의 수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일시 : 3월 23일 오후 4~6시 (참가비 무료)
- 일시 :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300홀
-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 문의 : 이투데이 전략사업실 (02) 799-2688, hsw0731@etoday.co.kr

車 타기 겁난다...올들어 벌써 '20만대 리콜'

16일까지 작년 전체의 33%
안전위협 치명적 결함도 증가
국토부 "능장리콜 과징금 신설"



올 들어 1분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자동차 리콜 대수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이 늘어난 것은 문제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 결함도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자동차 리콜이 20만4909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전체 리콜 대수 62만4798대의 약 33%에 달한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100만대를 넘겼던 2015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사별 리콜 대수 (단위: 대, 2015~2017년 3월)

르노삼성	445399	닛산	24526
현대차	410234	포드	23393
한국GM	313385	토요타	19707
기아	151476	재규어	19500
BMW	133886	포르쉐	7638
혼다	74440	에프엔케이	6006
아우디폭스바겐	71551	한울모터스	4746
벤츠	45346	볼보	1128
크라이슬러	44473		

이다. 최근 3년간 브랜드별 리콜 대수는 르노삼성이 44만 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41만 대), 한국GM(31만 대), 기아(15만 대), BMW(13만 대), 혼다·아우디폭스바겐(7만 대) 순이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제작자 등이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가 점차 전자장치로 작동하면서 특정 장치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에 지명

적인 위협을 주는 결함도 증가했다.

다카타 에어백이 대표적이다. 다카타 에어백은 작동 시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BMW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320i 등 17개 차종 1357대를 리콜했는데 다카타 에어백이 이유였다. 같은 달 24일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차 284대와 혼다코리아에서 판매한 GL1800 이륜차 162대도 리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부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의혹으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능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도훈 기자 sogood@

'총수 出禁'에 기업들 석달째 발동동

신동빈 롯데 회장, 사드 해결할 중 고위층 못만나고
최태원 SK 회장 M&A 차질... '빨리 출금 해제를'

글로벌 현장 곳곳을 뛰어다닐 재계 총수들의 발이 석 달째 묶여 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받은 특검이 지난해 12월 중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를 출국 금지한 탓이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재계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를 장기 출국 금지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달 내에는 출금 조치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출금을 해제할지, 연장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지난 18일 최태원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소환조사를 받는 만큼 최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가 올 수도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조사 신분에 대해 "일단 참고인"

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는 여지를 줬다.

총수들의 출금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영 역시 타격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SK이노베이션 역시 중국 석유회사 상하이세코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낙관하긴 어렵다. 당장 최 회장은 23~26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도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포럼은 중국 제국은 물론 정·관계 인사, 글로벌

기업 총수들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사업 전진 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친분이 있는 중국 고위층과 만남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국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의 출국금지 장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 활동을 고려해 하루 빨리 출금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송영록 기자 syr@

IT 정부 'ICT 융합' 엿박자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우리나라 ICT 발전지수는 2015년 기준 8.93점으로 세계 1위다. ICT 기초체력도 뛰어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분야별 벽을 허물어 융합의 시대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총출한 규제에 발목 잡힌 핀테크 산업, 자율주행차, VR 게임 등은 담보 상태이며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는 세계 129개국 중 25위에 불과하다.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최시원 회장 ▶9 허남권 부사장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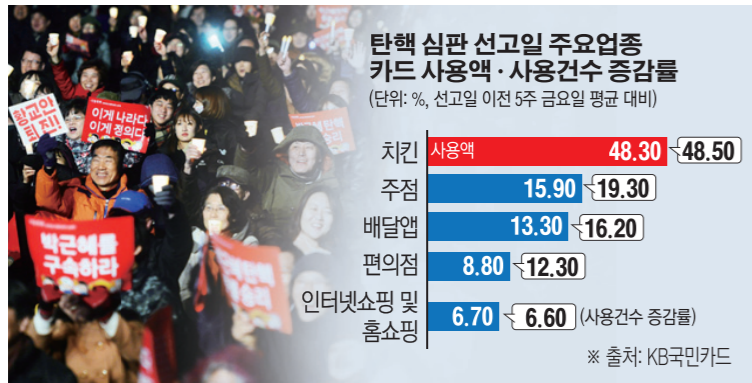
CTO를 만나다 ▶18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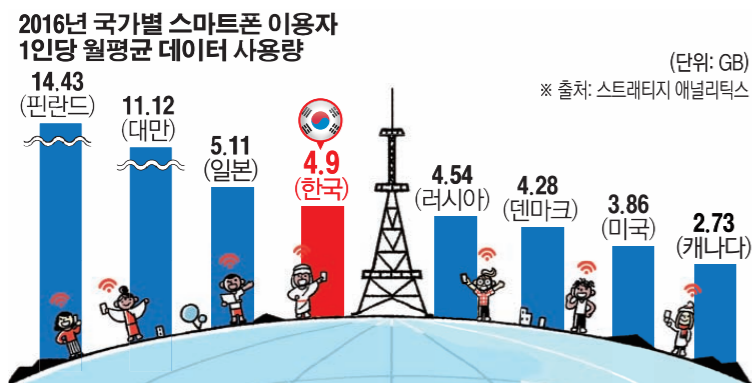


대통령 탄핵선고날, 영화관람·쇼핑 즐기고 배달앱 '特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치킨집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카드 사용액과 이용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20일 주요 업종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과 이전 5차례 금요일의 평균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킨집의 카드 사용액은 최근 5주 평균 대비 48.3% 늘었고 사용 건수도 4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점과 배달앱 사용액도 각각 15.9%, 13.3%씩 증가했다. 특히 직장인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 8시까지 사용액은 이전 평균치보다 60% 넘게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50.0%, 52.1% 증가했고 60대와 70대 이상도 33.0%, 27.9% 늘었다. 반면 영화관·공연장·전시관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25.2%, 사용 건수는 27.8% 각각 줄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의 사용액도 각각 8.4%, 6.5%씩 감소했고, 사용 건수도 감소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한국 데이터 사용 '세계 4위'... 1인당 월평균 4.9GB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세계 4위에 이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90기가바이트(GB)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인 데이터 사용량은 전 세계 평균인 1.65GB의 약 세 배에 달했다. 1위는 월평균 14.43GB를 기록한 핀란드였다. 대만은 11.12GB, 일본이 5.11GB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한국은 미국(3.86GB)과 캐나다(2.73GB), 영국(2.65GB), 호주(2.53GB)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최근 급성장한 중국(0.81GB)과 인도(0.90GB)의 데이터 사용량은 1GB도 미치지 못했다. SA는 "한국은 안정적인 모바일 사용자 환경에 힘입어 동영상 스트리밍 이용과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올해 데이터 사용량은 6.37GB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G2의 '푸대접'... '빈손'으로 돌아온 유일호

G20 경제외교 불발

유일호 부총리가 사드 보복·환율조작국 지정 등 G2 리스크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돌아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장관 면담을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에게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다. 유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에게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유가 등 구조적·경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환율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 등 예외적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우리 환율정책 원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므누친 장관은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긍정적 부

‘환율조작국 차단’美 재무장관 면담 므누친 “잘 알았다” 원론적 답변만

‘사드 해결’中 양자회담 요청했지만 “일정 맞지 않는다” 만나지도 못해

유 부총리 “사드보복, 物證이 없다” 내달 IMF 기약했지만 결과는 미지수

정도 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이 잘 알았다”며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련한 얘기는 안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독일 도르트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에서도 환율과 경상수지 등 IMF(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 대외부문 평가에서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환율 정책과 최근 경상수지 흑자 원인에 대해 IMF 총재에게 적극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환율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기준을 IMF에서 만든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바덴바덴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국 사드 재정부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때

까지도 중국과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를 장담하지 못했다. 정부는 현지에서 막판까지 중국 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중국은 끝내 “노(No)”였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중국 쪽에서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문제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면서 “중국에 어떻게 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로 정치·외교 문제가 있지만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다음 달 IMF 회의 때 양자회담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 달 만에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사드 배치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측에 면담 요청을 해 봤자, 이런저런 핑계로 만남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덴바덴(독일)=양창균 기자 yangck@

이런데도 物證이 없다... 중국 내 롯데마트 90% 문 닫았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조치로 중국 현지에서 영업 중인 롯데마트 매장 10곳 가운데 9곳가량 쫓겨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롯데에 따르면 중국 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매장 수는 67곳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8일 영업정지를 당한 매장이 55곳보다 열흘 사이 12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영업정지 사유는 소방시설 점검 등이 대부분이다. 중국 당국의 보복성 조치에 따른 정지뿐 아니라 롯데마트가 스스로 문을 닫은 점포도 20곳에 가깝다. 매장 앞 시위 상황 등에 따라 수일 내외로 휴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롯데마트 매장 99곳 가운데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점포는 90%가량에 이른다. 만일 87곳 점포가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한다면 매출 손실은 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 점포수 67개로 늘어난 달간 매출손실 900억 웃돌 듯 직원임금은 100% 지급... 피해가중 롯데상하이푸드도 생산중단 명령 국내선 면세점·월드타워 매출 급감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 매출은 1조1290억 원으로 월평균 매출은 940억 원이었다. 특히 중국 당국이 30일짜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직원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항 때문에 30일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뒤 다음 달 또다시 대규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곳에는 중국인 직원 1만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우리 돈 7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중국 상하이 소재 미국 허쉬와 롯데제과가 합작해 세운 롯데상하이푸드

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이 지난 6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다. 중국 내 보복 강도가 심화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가 앞서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롯데 측은 다른 업종 계열사의 영업을 들며 축소·철수설을 부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면세점과 롯데월드타워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작년 매출은 6조 원으로 이 중 70%인 4조2000억 원이 중국 관광객 매출이다. 사드 보복에 중국인 관광객이 연 400만 명 줄어든다면 1조 원가량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등의 피해가 추가되면 2조 원가량의 매출이 허공에 날아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조남호 기자 sprdn@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당국 '연체이자율 인하' 꺼내자, 은행 "게임 룰 허무는 카드"

대출금리 계속 오르는데... 한계차주 대책은

美 금리인상에 시중銀 금리도 들쭉... 1%p만 올라도 가계 13조 추가부담
원리금 상환조차 못하는 '한계차주' 금리 상승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
금융당국 '원금부터 상환' 등 대책 검토... 금융권 "시장질서 역행" 난색

글로벌 금리가 완연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가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을 저금리에 빌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면서 "한계차주를 포함한 대출자의 연체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줄 만큼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141조 원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높아져도 연간 13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대출 금리 상승 압박 커져 '계속 오른다' =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꾸준히 상승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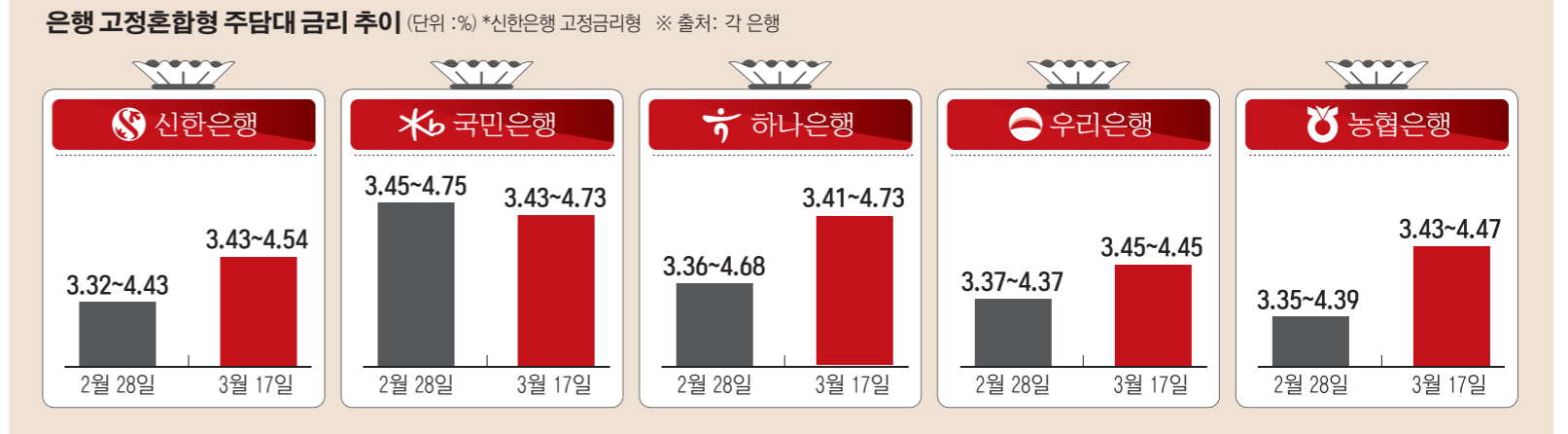
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0.25%포인트) 결정 이전에 분위기가 선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주춤하다 지난해 변동 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17일 기준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주담대 5년 고정혼합형 상품 금리는 최저 0.02%포인트에서 최고 0.08%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전에는 최고 0.12%포인트까지 올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변동금리(5년 고정금리) 상품이 3.32~4.43%에서 3.43~4.54%로 0.09%포인트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3.36~4.68%에서 3.41~4.73%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 NH농협은 각각 3.37~4.37%에서 3.45~4.45%, 3.35~4.39%에서 3.43~4.47%로 0.08%포인트씩 인상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대출 금리 상승기에 상품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보다 0.02%포인트 내린 3.43~4.73%를 유지했다.

문제는 대출 금리 폭선이 완만한 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는 대출 최고금리 5% 돌파가 시간만 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거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계차주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이 불리는 2급

유권어 현장점검을 단행한다. 대상은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곳, 여전사 7곳이다. 현장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한 뒤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KB국민카드, 하나카드,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일부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업계에 고위험 대출요건을 신설하고 추가 총담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한계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법은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 비용과 이자·원금 순으로 받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약관을 변경하면 원금을 먼저 갖고 이자를 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 공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미 적용하는 만큼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체이자율은 일종의 페널티 개념인 만큼 인하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미분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자·원금 등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이었던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효찬·서희희 기자 js62@

퀄컴과 '1조 소송'... 友軍 확보한 공정위

"특허권 횡포로 피해" 애플·삼성·인텔, 공정위 보조인으로 가세

1조원 대 과징금을 두고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소송에 휴대폰제조사인 애플·삼성전자와 칩셋제조업체 인텔이 가세했다. 그동안 퀄컴의 특허권 횡포에 불만이 있던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인텔코퍼레이션, 삼성전자는 퀄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소송보조 참가를 신청했다. 공정위의 편에 서서 퀄컴 측과 맞붙겠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은 대항로품을 앞세워 소송에 나선다. 애플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인텔은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앞서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울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긴 바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결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예외다.

재판부는 서면을 보거나 별도로 심문을 열어 주장을 검토한 뒤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들 3사는 표준필수특허(SEP)를 빌미로 한 퀄컴의 횡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과 삼성전자는 퀄컴이 표준특허를 무기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과도한 특허료를 냈다고 밝혔다. 퀄컴과 경쟁하는 칩셋제조업체 인텔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퀄컴·공정거래위원회 행정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여부	통신업계 관행	프랜드(FRAND)원칙 위배해 사업활동 방해
절차 문제	자료접근권, 교차 신문권 보장 못 받아	방어권 충분히 보장
과징금 규모	한국 수익 적어 과징금 지나쳐	과징금 적정하게 부과

애플 등이 보조참가인으로 채택되면 재판에서 직접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 등 대부분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지자를 얻는 셈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삼성이나 인텔 등은 퀄컴과 이해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조참가를 받아들여도 퀄컴 측에서 반발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퀄컴 측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낸 상태다. 제3자인 기업들이 퀄컴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소송기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기 전까지 소송기록 열람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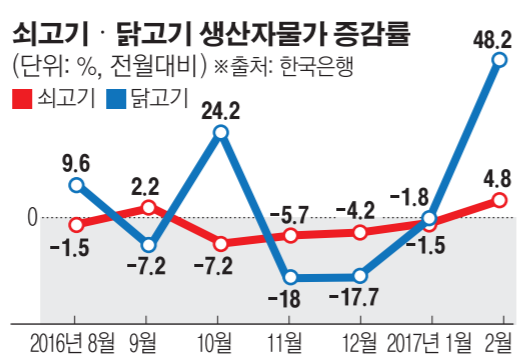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퀄컴이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등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다툼 전망이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닭고기 생산자물가 48.2%↑ AI여파로 역대 최고치 상승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쓴 가운데 닭고기 생산자물가가 5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 물가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생산자물가는 공산품 상승에 따라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1달 만에 가장 낮았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닭고기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48.2%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최고치는 2015년 12월 기록한 45.4% 상승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후 그 여파가 확산한 때문이다. 급기야 산란계 부족에 따라 달걀 값마저 급등한 바 있다. 실제 달걀 값은 지난해 12월 전월비 24.7% 상승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40.9%나 올랐다. 2015년 12월 급등 영향도 당시 10월 AI가 발생한 때문이다. AI에 이어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4.8%나 올랐다. 이는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며 작년 1월 5.6% 상승 이후 최고치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 축산물도 전월 대비 5.7% 올라 전월(6.3%)에 이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AI와 구제역 여파 이후 달걀과 닭고기 등에 대한 수요가 회복됐지만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이는 작년 8월 0.1%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오름세다. 다만 상승폭은 작년 10월(0.3%)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생산자물가는 4.2% 올라 2011년 12월(4.3%)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김남현 기자 kimh21c@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 제주 탐라해상풍력 조감도
한국남동발전 해상풍력발전기 107기(30MW) 설치 중

새 에너지 신바람

한국남동발전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이끌어갑니다.

세계 최초 발전소 병각수를 활용한 삼천포 해양 소수력 개발 (영종화력에 확대 설치)
1MWp 태양광 발전소 영종본부에 설치(삼천포, 영동, 여수, 분당본부에 확대 설치 운영)
국내 최대 국산풍력단지(46MW)건설
국내 최초 계통연계형 300kW급 연료전지 설치(2013년 3MW규모로 중설)
발전사 최초 계통연계형 태양광(100kW) 사업
물가리아 태양광(41.62MW), 미국 풍력 (120MW) 운영 관리

신재생에너지 비전 2025 수립 및 신규 개발 투자에 매진함으로써 2025년까지
총 발전량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19대 대선 D-50 각 당 경선 후보 확정 마무리단계

文 독주, 예선 넘어 본선까지? 늦어도 내달 8일 최종 대진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잠미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50일 남았다. 각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당 대선 주자들은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정책대결-민심잡기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27일 호남 시작 4차례 지역순회 경선

정당지지도 50%를 넘나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이다.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과 당 조직력을 갖춘 문 전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같은 해 18대 대선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다. 고배를 마셨다. 그는 이번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4대 재벌 기업 규제 등 재벌 개혁도 강조하고 있다.

안 지사도 참여정부의 개국 공신이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그는 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책임을 지고 영어(監獄)의 몸이 되기도 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복귀한 뒤 재선 충남지사가 됐다. '대연장' 기지를 강조하는 한편, 10년 일하면 1년 유급 휴가를 주는 '전국민인식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흙수저 대통령'을 꿈꾼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소년공 출신인 그는 고입-대입검정고시, 그리고 사시에 합격했다. 변호사 개업 뒤엔 시국사건과 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재선 성남시장인 그는 시에서 성공한 청년배당을 토대로 기본소득제를 약속했다. 국도보유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 28조 원을 마련해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연 1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고양시장이었다. 주요 공약은 통일-안보-국방 현안반 중앙정부와 말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넘기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통일한국 실리코넬라' 구축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오는 27일 호남을 시작으로 4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여기서 과반 승리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로 8일 최종 승부를 가른다.

국민의당, 안철수 우세... 과반 안되면 6일 확정

국민의당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의장 간 3파전이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의 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대표는 의사, 프로그래머, 벤처 기업인, 대학 교수 등 여러 타이틀을 가졌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에 양보한 뒤 이듬해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섰다. 문재인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중 사퇴했다. 민주당에서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이번에 문 전 대표와의 일대일 대결을 원하고 있다. 기존 초중고 학제인 '6-3-3'을 '5-5-2'로 바꾸는 '학제개편안'이 주요 공약이다.

운동권 출신인 손 전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뒤 대선에서 연거푸 실패한 그는 지난 2012년 총

선 때 낙선하자 정계은퇴했다가 반복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으로 다시 적을 옮긴 그는 이번엔 '저녁이 있는 삶' 법제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

박 부의장은 울산 출신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5선 국회의원으로, '네 번 구속, 네 번 무죄'라는 특이 이력도 있다. 뒤늦게 레이스에 참여, 호남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이다.

지금까지의 판세로는 안 전 대표가 우세하다. 다만 현장투표 80%, 여론조사 20%라는 경선 룰이 손 전 대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어서 결과 예단은 어렵다. 4일까지 7차례 지역순회 투표를 통해 4일 경선 결과를 낸다.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6일 확정한다.

정의당은 일찍이 심상정 대표를 대선 주자로 확정했다. 대선 삼수생인 심 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진보정치의 맏언니 역할도 해왔다.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담은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이 공약 1호이며,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 달성, 노동부총리제 신설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 오늘 2차 컷오프... 홍준표 선두 달려

자유한국당은 18일 경선 1차 컷오프를 거쳐 6명의 후보를 추렸다. 오는 31일 후보를 확정 짓는다.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국당 내 지지율 1위이자 보수진영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 전 대표를 지냈으며 경남지사를 지내면서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주민소환을 당한 이력이 있다. 성완중 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번에 대선 가도에 뛰어 들었다.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 대국기 집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대선 출마까지 결행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수 가치를 세우겠다는 각오이다. 전술핵 및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채택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번이 네 번째 대선 도전이다. 7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사드 배치 등이 있다. 원유철 의원은 도의원에서 시작해 내리 6선 국회의원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한국형 핵무장,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 등이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삼선 지사로, 454정책(경제성장률 4%, 일자리 연 50만 개, 소득 4만 달러),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중소기업부 설치 등이 공약이다. 안상수의원은 3선 의원이자 재선 인천시장 출신이다. 지식산업단지 10곳을 개발하고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28일 최종 결정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일찌감치 경선 국면에 돌입, 오는 28일 최종 후보를 가른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쟁 중이다.

유승민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원로 친박이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갑퇴근법 제정, 사드 배치,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을 약속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5선 의원 출신으로, 한때 원외로 제주지사, 정병국 전 대표 등과 '남일정'이란 개혁파로 불렸다. 주요 공약으로는 모병제 도입, 전술핵 배치, 사교육 철폐 등이 있다. 정치팀

정당별 대선주자 대선공약(의석수별,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이름 (나이)	문재인(64)	안희정(51)	이재명(52)	최성(53)
경력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19대 국회의원,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재선 충남지사, 전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대통령후보 정무팀장	재선 성남시장, 전 국가청렴위 성남부정부패 신고센터 소장, 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재선 고양시장, 17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대중정부 외교안보정부 비서실 행정관
주요공약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광화문대통령시대' 개막,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부 신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연장, 전 국민인식제, 국가안보최고회의, 제2국무회의 신설, 공정노동위원회 신설,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 새구조로 이전	연 기본소득 130만 원 제공, 생계형 부채자 490만 명 신용대사면, 리코법 제정, 사드 배치 철폐, 스마트 강권 10만 양성	통일한국 실리코넬라 전국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일기 내 자치분권 개헌, 유치원~고등학교 지자체 차원서 무상교육



자유한국당

이름 (나이)	김관용(74)	김진태(52)	안상수(70)	원유철(54)
경력	3선 경북지사, 자유한국당 비대위 상임고문, 전 구미시장	19, 20대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간사,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5, 19, 20대 국회의원, 전 재선 인천시장, 2012년 박근혜캠프 선대위원장	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주요공약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454정책(경제성장률 4%, 일자리 연 50만 개, 소득 4만 달러),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중소기업부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대책위 설치	한반도 전술핵 배치, 사드 배치 완료, 국정교과서 채택 의무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형 집행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 지식산업단지 10곳 개발,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인천경제자유구역 151층 인천타워 건설, 해양경찰청 부활	대선 전 개헌, 한국형 핵무장 추진, 사드 조속 배치, 한중 열차패시 및 한중일 해저터널, 청년 지역전문가 10만 명 양성

이름 (나이)	이인제(68)	홍준표(62)
경력	13~19대 국회의원, 전 노동부 장관, 전 경기도지사	재선 경남지사, 15~18대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대표
주요공약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 흙수저, 비거티브식 규제 전환, 김영란법 전면 손질, 노조 등 노동개혁	한반도 전술핵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선별적 복지

바른정당

이름 (나이)	남경필(52)	유승민(59)
경력	경기지사, 15~19대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18~20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여의도연구소장
주요공약	모병제 도입, 자체 핵무장 및 전작권 회수, 사교육 금지, 기본근로권 도입-플랫폼 도시로 일자리 40만 개 창출, 청와대-국회-대법원 새구조 이전	육아휴직 3년 확대, 갑퇴근법 제정,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 이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부양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월 80만 원 보장

국민의당

이름 (나이)	박주선(67)	손학규(69)	안철수(55)
경력	국회부의장, 16~20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14, 15, 16,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대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주요공약	국가개혁세력 대연결 정권 수립, 대통령 비서실 대폭 축소, 청와대-국회-지자체장 연담 정례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헌, 공공부문 인력 11만명 감축, 1-5-3-2+α 학제개편, '하나로 연금'으로 5대 연금 통일, '저녁이 있는 삶' 법 제정	5-5-2 학제개편,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 설치,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 명 양성, 국방비 GDP 대비 3%로 상향

정의당

이름 (나이)	심상정(58)	경력	주요공약
		정의당 대표, 17, 19, 20대 국회의원,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국민월급 300만 원 실현, 2040년까지 원전 제로, 노동부총리제-노동전문 검사제 도입, 사회복지제 신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50여 일 앞둔 19일 오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개표관리 정확성 제고 및 신뢰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뉴스

“美·中 무역의존 축소” 舊소련·아랍 주목

산업부, 멕시코·유라시아경제연합·걸프협력회의 등 유망 경제권과 FTA 추진

정부가 미국, 중국에 치우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자 구소련, 아랍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대(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0%에서 2016년 25.1%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2월 26.1%로 다시 높아졌다. 대미국 수출 비중도 10.1%에서 13.4%로 늘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재개를 추진한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인 EAEU와는 신규 FTA를,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모색할 전망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다.

우리나라는 2007년 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해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멕시코와도 2008~2009년 전략경제협력협정(SECA) 실무협상이 진행되다가 협상이 중단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간 회동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HAAD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사드 관련 계기별로 중국 내 조치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 대응, 시장 다양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비싸진 원貨... 금융위기 이후 최고

2월 실질실효환율 2.91↑ 114.02

조사대상 61개국 중 상승률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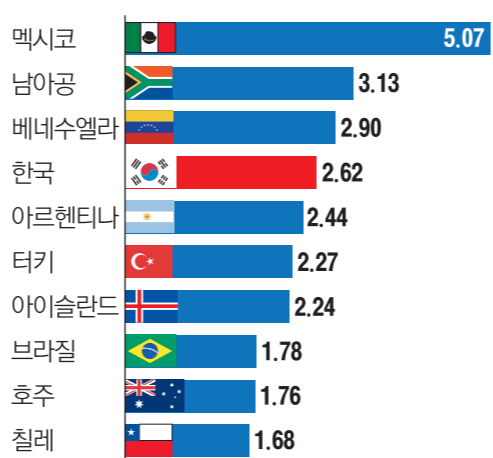
美 트럼프 정부 출범·금리 인상에

신흥국 프록시 통화 역할 영향도

엔화 대비 원화 상대적 강세 보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올인해야

2월 실질실효환율 상승폭 상위 10개국 (단위: %)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폭도 조사대상국 61개국 가운데 4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라 원화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설 때라는 지적이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4.02를 기록해, 전월(111.11) 대비 2.91포인트(2.62%) 상승했다. 이는 2008년 2월 118.75 이후 최고치다. 월별 상승률도 멕시코(5.07%), 남아프리카공화국(3.13%), 베네수엘라(2.90%)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반면 주변국인 일본은 0.95% 올라 1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오히려 0.94% 떨어져 61개국 가운데 하락률 상위 9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엔·원 실질실효환율은 148.42로 2015년 12월 153.61 이래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위안·원 실질실효환율도 93.37로 2014년 9월 94.4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질실효환율이란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2010년)보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2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40.18원(3.4%)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어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년 들어 16일 현재까지 원화절상률은 6.7%에 달한다. 트럼프 당선과 연준의 연말 금리인상 기대로 작년 말 약세를 보였던 것을 빠르게 되돌림하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중국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에 대한 프록시 통화 성격도 있는 것 같다. 원화가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거래비용이 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 비해 환율이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었다. 기업들도 환헤지 전략을 세우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부진과 경성수지 흑자폭 축소,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강세 요인으로 꼽혔다.

김장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성수지 흑자폭이 줄고 있어 원화가 약세를 보일 요인은 많다”면서도 “외국인이 울타러 국내 주식과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보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원화가 엔화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푸르지오호텔에서 장재원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 동반성장위원회 안종영 위원장·무역보험공사 유재남 본부장 등 60여 회원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KOEN 동반성장 중점 추진 과제' 선포식을 가졌다.

남동발전, 동반성장 과제 선포 “우수中企 수출 지원”

무역보험공과 제휴 통해 발전산업 거점 구축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동발전(KOEN)은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푸르지오호텔에서 '2017 KOEN 동반성장 중점 추진 과제' 선포식을 열고, 제2차 중점 과제인 동반성장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남동발전은 무역보험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수출보험 지원으로 협력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발전산업 한류' 거점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매출액 200억 원 달성,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 3000만 달러 달성, 벤처 및 창업기업·타 업종 취약

중소기업 80개사 지원 등 과제도 포함됐다.

이날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남동발전 협력사 등 수출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남동발전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발굴해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재원 사장은 “남동발전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매출 증가 등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동반성장 실적 경영평가에서 '공기업부문'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 年30조”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유통기사 1% 가짜 가정시 GDP 1.9% 규모 추정”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559조 원의 1.9%에 이르는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연준인재재단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는 일평균 3만5948개 수준이다. 연구원은 가짜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자료의 한계로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했다.

가짜뉴스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개인 및 기업)와 사회적 피해금액으로 구분했다.

개인은 가짜뉴스로 정신적 피로, 사회활동 제약,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위축이 1달가량 지속된다고 보고 월평균 소득을 피해금액으로 추정했다. 기업은 가짜뉴스 유포

기간을 1일로 잡고 일평균 매출액을 피해금액으로 가정했다.

사회적 피해의 경우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근거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다. 가짜뉴스의 제작 및 유포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같이 설정하고 집계한 결과 당사자 피해 22조7700억 원(개인 5400억 원, 기업 22조23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7조3200억 원 등 연간 약 30조900억 원을 한 해 가짜뉴스 피해액으로 추산했다.

이에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 (2016년 9월 기준) | (2016년 9월 기준) | (2016년 12월, 증권업계 최초)

| 1969년 설립 | 5년 연속 신용등급 AA+ | 고객자산 209조 | 총자산 44조 | 소비자 중심경영 CCM 인증 |

48년간의 결과가 보여줍니다

누가 대한민국 금융투자의 대표인지.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총자산/고객자산(2016년 9월말) 공시자료, 사업보고서 • 5년 연속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 증권업계 최초 소비자 중심경영 CCM인증(2016년 12월, 증권가리위원회, 한국소비자지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일 제16-06507호 (2016-12-26~2017-12-25)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농협이 되겠습니다

농민으로, 국민결사로

배수진 친 차...“예상질문 뽑아 답변 준비”

‘피의자 박근혜’ 檢 출석 D-1 직권남용·뇌물 등 13가지 혐의 변호인단과 막바지 준비 총력 내일 오전 9시 경호진과 이동 포토라인 ‘대국민 메시지’ 주목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19일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가장 처음 맡았던 검찰 출신의 유명 변호사가 세부사항을 대비하고 있고, 손 변호사 등은 ‘숨을 불 수 있게’ 큰 틀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문 이외에 다른 출구를 폐쇄하고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보도진도 40여명 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신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다음날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경 경호진과 함께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 등 핵심 변호인만 동행하고, 나머지 변호인단은 각자 검찰로 이동해 미리 대기한다. 9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면 약 20m 떨어진 곳에 표시된 폭 7m 넓이의 포토라인에 선다. 80여 명의 사진기자의 플래시 세례 속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나

변 청사 중앙현관을 지나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조사실은 특수1부가 위치한 10층이나 형사8부가 있는 7층, 둘 중 한 곳이 거론된다. 특별 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노승권 1차장과 간단히 면담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는 조사실로 들어가면 한용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질문하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가며 답변한다. 이 지검장과 노 차장 등 지휘라인 간 부름은 영상을 통해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조사 시간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12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느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좌영림 기자 jy97@**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촛불집회, 노벨평화상 추진”

서울시, TF팀 가동 후보 추천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검토

촛불집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우리 촛불집회는 시민명예혁명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며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한 일기기에 서울시가 이를 지원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촛불집회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기 위해 촛불집회 초기부터 기록은 물론, 문제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반발해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블랙텐트’, 서울시와 마찰을 겪고 있는 탄기국 측의 서울광장텐트까지 모두 등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후보의 추천은 국회나 노벨평화상 수성자가 할 수 있고

록 돼 있어 지자체인 서울시는 직접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때문에 서울시는 추천 권한이 있는 주체들에 본격적인 추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노벨 평화상 추진을 위한 TF팀을 가동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시민추천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1월 31일 마감되는 노벨 위원회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추천권자는 시민추천추진단에서 선정하되, 명망 있는 각계 인사 20명이상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촛불집회를 미국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광고를 싣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박 시장은 “촛불집회 모습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서울’을 홍보하는 방향”이라며 “과거 전두청 시위와 북한 핵 위기 이미지를 가진 외국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3년에도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김정용 기자 cogito@**

학원홍보 ‘땃글알바’ 의혹 경찰, 설민석·최진기 수사



경찰이 스타강사 설민석(47·사진·국사) 씨와 최진기(50·사회탐구 영역) 씨의 ‘땃글 마케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 불법 땃글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며 설 씨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정모는 대형 인터넷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가 지난 5년 간 땃글홍보업체 G사를 시켜 설 씨 등 일명 ‘일타강사(일등스타 강사)’에 대한 수만 개의 홍보 땃글과 경쟁사 강사 폄하 땃글을 달아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투스 소속 설 씨와 최 씨도 지시를 내리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제보자인 전 이투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설 씨와 최 씨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세월호 3주기 前 인양...날씨에 달렸다

인양 장비 등 사전점검 마무리 22일 이후 기상 여건이 변수

세월호 인양 날짜가 오는 22일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침몰해 곧 3주기가 다가온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19일 모두 마무리했다. 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세월호를 끌어올릴 66개 유압잭과 와이어(인양줄)의 인장력, 중앙제어장치 센서들에 대한 시험과 일부 보완작업을 벌였다.

세월호를 받쳐 들고 목표선까지 운반할 반잠수식 선박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약 26m까지 잠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일 저녁부터 유압잭 제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작동 상태를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 와이어에 장력이 정확히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은 세월호를 받쳐 들고 목표선까지 운반할 반잠수식 선박에 대한 테스트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 않았다. 18일 저녁부터 진행된 와이어 장력 테스트 과정에서는 일부 와이어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앵커가 회전하지 않도록 강한 절재로 된 꼬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 후 19일 오후 시험에서는 정상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양단은 이날 제강비지선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오전 6시 기준 기상

예보에서 20~21일 파고가 최대 1.7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험인양을 보류했다.

장기유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인양추진과장은 “유압잭에 연결된 와이어를 이원시켜 대기한 상태에서 시험인양(해저면에서 1~2m 인양) 등 후속 일정을 위해 22일 이후의 기상여건을 보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good@**

롯데총수 一家 5명 나란히 법정 선다

경영비리 의혹 오늘 첫 공판 신격호·동주·동빈 등 5명 출석 신총괄 셋째부인 서미경씨도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20일 법정에서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대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8·사진)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변론계획을 세우는 준비 절차라 신 총괄회장 등이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에 거주 중인 서 씨는 검찰을 통해 이날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이 나아질 때



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맡겨 모녀에게 조자라고 조사됐다.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변론기일에 서 변호인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070 시니어 매거진 Monthly Magazine
BRAVO My Life
03 Vol.27 MARCH 2017

일곱 번째 자선 콘서트에는 문화지성인 윤석화 돌꽃처럼 단단한 인생

아산세계꽃식물원으로 봄 미중 산책
노후자금원천을 원문 투자로 해볼까?
엔터테인먼트의 은퇴재무설계 가이드

블리츠스에 빠진 중년들이 아름답다
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규의 심해(헤이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승연의 가족이야기

Magnetism

싱그러운 봄바람에 매력자산 돌아나고 황홀한 매력의 남자, 여자가 되는 법

COVERSTORY 싱그러운 봄바람에 매력자산 돌아나고

PART1.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옷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사회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변화의 물결 선두에는 청바지와 원피스가 있다 정성영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PART3. 내로라하는 쟁쟁한 여성 패셔니스타 4인 김민정 패션에디터
PART4. 엄마에게 딸의 웃음을 허하라!
PART5. 2030 직장인, 아재의 매력을 말하다
PART6. 아재, 한 곳 차이로 오빠 되다
PART7. 패셔니스타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성공의 첫걸음, 패션

문화관 답사기 심훈기념관
질투는 소나무 사이 농촌계몽운동의 기억이 살아있는 곳
눈 녹지 않은 시골길을 굽이굽이 지나자. 길게 늘어선 소나무의 그림자는 쓸쓸하고 차가웠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끼 낀 옛 유적을 찾아가는 기분. 굽이치는 소나무 숲길을 지나 만난 심훈기념관(충남 당진시 상록수길 97)에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박동혁과 채영신, 그리고 작가 심훈이 옛이야기를 나누듯 서 있다.

3월의 산책
Life is a Flower! LIAF·아산세계꽃식물원
봄이 가지개를 켜는 3월이다. 우리네 마음은 춘삼월(春三月)이어서도 꽃봉오리들은 아직 몸을 움그리고 있다. 봄꽃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아산세계꽃식물원을 찾으면 사시사철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일곱 번째 자선 콘서트 여는 윤석화, 윤석화다운 삶을 말하다
불행은 내 정정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시작된다

“항상 양보해야 말이 없어요”
가수협회장 김홍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년 만에 꿈을 이룬 브리프링스 한홍철 회장
아름다운 소행성을 꿈꾸는 일흔의 어린 왕자

추억이 발을 발을, 오늘은 경양식 먹는 날!
한때 ‘칼질러 가지’고 하면 그날은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 먹는 날’이었다. 요즘은 도시락 반찬이나 분식 정도로 생각하는 음식이 돼버렸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좋은 날 귀하게 먹던 고급 외식 메뉴였다. 멋스럽게 차려지고 나가 돈가스를 싣어 기분을 내던 그 시절의 추억을 재현한 맛집 ‘모던컬음점식’을 찾았다.

이분규 심해 데이트
50세 지금이 딱 좋아! 60세 내 모습 기다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승연은 결혼한 지 9년째인데 매일매일 연애하는 것같이 짜릿하고 즐겁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억만금을 쥐고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 이승연은 행복하다. 나이 50에 해탈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녀와의 탈탈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최은주·최원국·신용재·이경숙·한정숙·조영래 동년기자
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치지 못한 편지
이근후 이화대 명예교수
그날 왜 늦은 줄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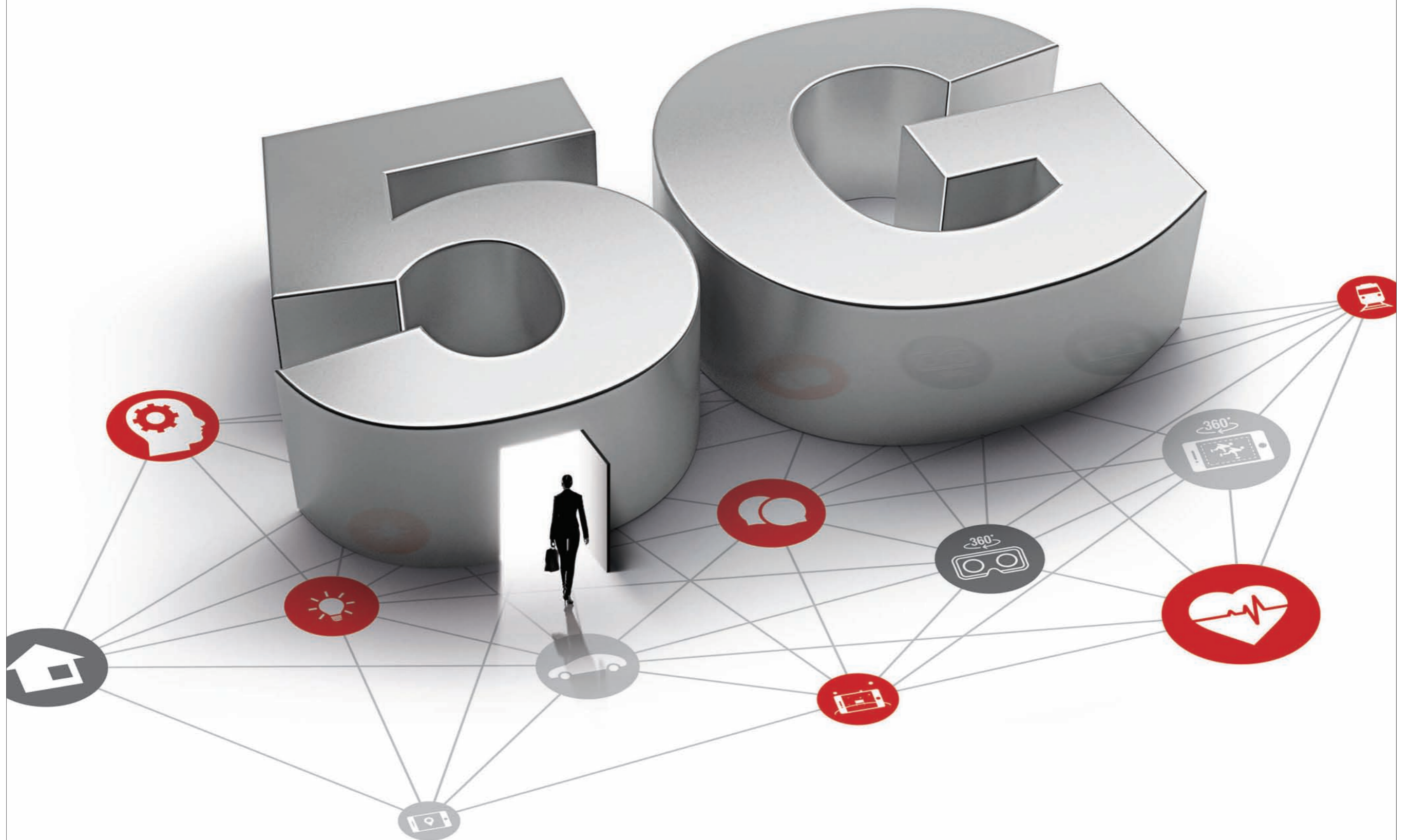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KT,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합니다

2018년 첫 시범서비스 제공

도로와 연결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주변의 모든 사물, 환경과 소통하며 알아서 기능하는 IoT 전자제품
 먼 여행지에서도 건강을 바로 관리받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음식 냄새, 옷의 촉감까지도 그대로 전달되는 실감형 영상까지
 당신이 제일 먼저 누리세요.
 모두가 더 편리하고 즐거워지는 5G 세상,
 KT가 세계 최초로 열어가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 확대 나선 아프로서비스 현대저축은행·자산운용 동시 인수 추진

**이베스트증권 인수전도 참여
OK저축은행·러시엔캐시 보유
국내 금융회사 인수 성공판
일본계 꼬리표 뗄 수 있을 듯**

OK저축은행, 러시엔캐시(아프로와 이베스트), 미즈사랑 등 제2금융권 회사를 다수 보유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이 KB증권 계열사인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자산운용의 동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에도 참여한 아프로서비스가 국내 다수의 금융·증권사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제1금융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는 인수 자문사인 삼일PwC를 통해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자산운용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매각주관사인 EY한영과 삼정KPMG는 이달 22일 각각 현대저축은행, 현대자산운용의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아프로서비스가 두 회사 예비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프로서비스가 이들 회사의 인수에 나서려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재일동포 3세인 최윤 아프로서비스 회장은 2004년 당시 대부업체 1위인 A&O그룹 인수를 통해 국내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당시 최 회장은 제일 상공인들과 JNK컨소시엄을 구성해 A&O를 인수했다. 이어 원캐싱, 한국씨티캐피탈 등 중소 금융사 인수에 주력했다. 이 같은 행보를 보인 최 회장은 KB증권 계열이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면 일본계 자금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도 일본계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내 대표 금융사”라며 “최 회장의 목표도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대저축은행 등을 상대적으로싼 가격에 인수할 기회인 것도 최 회장이 적극적인 M&A 추진 행보를 보이는 배경이다. 국내 기업은 증권 및 중소형 금융사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권사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융시장 재편과 함께 비교적 약한 인수 경쟁률을 고려하면 최근 매물로 나온 중소 금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국내 주요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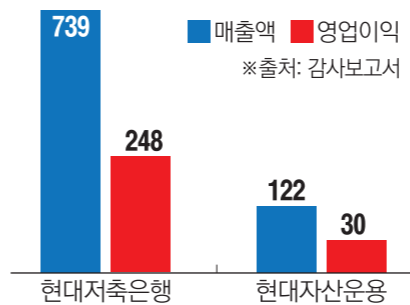
2016년	한국씨티그룹캐피탈
2014년	예주, 예나래저축은행(OK저축은행)
2010년	원캐싱
2009년	미즈사랑, 한국B금융
2004년	A&O그룹 인수

융·증권사의 매각 가격은 치솟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저축은행 등의 주요 인수 후보는 대만 푸본그룹 등 대부분 아시아권 업체다.

아프로서비스가 이베스트투자증권보다 KB증권 계열사 인수에 무게를 둘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매각 측인 LS네트웍스는 이 회사 매각가로 5000억 원 중반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는 4000억 원 초반을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매각가는 매각 측과 인수 후보 간의 이견이 있는 반면 현대저축은행, 현대자산운용의 시장가치는 고평가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대저축은행은 2000억 원 안팎,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자산운용의 2015년 실적 (단위: 억원)



현대자산운용은 300억~400억 원 수준이 적정 매각가로 평가되고 있다. KB증권도 현대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편입된 이들 계열사를 고객을 받고 매각하기보다는 시장 가치 확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는 금융당국이 더 이상 국내 운용사에 공모펀드 운용자격을 허가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자산운용은 매력적인 매물로 꼽힌다는 평가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아프로서비스 입장에서는 증권·운용사를 인수하는 것이 기존의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최적의 구조지만 가격대에 따라 전략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정다운·정수현 기자 freshphase@

내달 출시 新실손보험 보험료 37.5% 내린다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가격 인하 폭이 예초 예고됐던 약 25%보다 더 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현 보험료가 아닌 약 20% 저렴했던 작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상품과 기존상품 간 가격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상품 보험료를 지난해 요율을 기준으로 ‘기본형은 약 25%, 전체 가격은 약 7%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25% 저

37.5%, 특약을 포함한 전체 가격은 약 22.5% 저렴해진다. 당국이 예초 밝힌 기본형 약 25%, 전체 가입 약 7% 인하보다 할인폭이 더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과 신상품 보험료 가격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40대 남성이 삼성화재 기존 실손상품(건강보험 NEW 세시대 건강파트너)에 가입하면 월 2만2455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 인상 전 보험료(1만7532원)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면 신상품 기본형 가격은 1만3149원, 전체 가입

가격은 1만6305원이다. 각각 현 보험료 대비 41.4%, 27.4% 저렴해지는 셈이다. 인상폭이 평균을 웃돌았던 만큼 보험료 인하폭도 더 크다.

올 초 인상된 요율에서 보험료를 할인하자고 주장했던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신상품 보험료도 기존보다 대폭 내려간 건데 인상 전 가격에서 내리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손해율이 더 악화돼 제도 개선 취지였던 손해율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신상품 요율을 바탕으로 각 사 사업비 등을 반영한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업계 한 실손보험 담당자는 “금융당국이 작년 요율을 기준으로 가격을 내리라고 했다”며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지난해 요율을 쓰면 약 25% 인하, 올해 요율을 쓴다면 할인 폭을 더 키워 당

국 요구 수준에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균 20%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보험료보다 신상품 기본형 가격은 약 37.5% 내린다. 박규준 기자 abc84@

“올 초 20% 올리고 25% 내리면 제자리
지난해 요율 기준으로 가격 인하할 것”
금감원 기준 예고보다 인하 폭 커질 듯

럼한 착한 실손이라고 내놨는데 올 초 보험사들이 20% 올리고, 25% 내리면 제자리 수준 아니냐”며 “전 생·손보사 모두 지난해 요율을 기준으로 가격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초 당국과 보험업계는 20%가량 비싼 올해 보험료와 그만큼 저렴한 작년 보험료 가운데 어느 요율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지난 1월 11개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평균 19.5% 올렸다. 삼성화재는 24.8%, 현대해상 26.9%, 동부화재 24.8% 등으로 대형사는 평균치를 웃돌았다.

평균 20%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보험료보다 신상품 기본형 가격은 약

캠코, 온비드 통해 국유재산·압류재산 동시에 공개매각

**20일부터 22일까지 980여건
국유재산은 대부분 10% 과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유재산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지역에서 총 16회 개최된 공매투자 아카데미에는 약 3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연간 낙찰 건수는 3만3000건, 입찰 참가자수는 1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압류재산은 국제징수법,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에 각각 의거한다.

압류재산 공개매각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제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세금 체납자의 압류재산 처분인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데다 세금납부, 송달 불응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캠코 조세정리 담당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이상에 대해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유재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분의 10%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바, 연간 대부분이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연간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써 대부계약 만료 시 전세 혹은 대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국유재산·압류재산 공매는 모두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압류재산은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8건을 포함한 1105억 원(913건) 규모다. 국유재산의 경우 35억 원, 68건의 국유부동산을 매각 및 대부분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BC 카드, 공유 모델로 '지금하세요,BC' 새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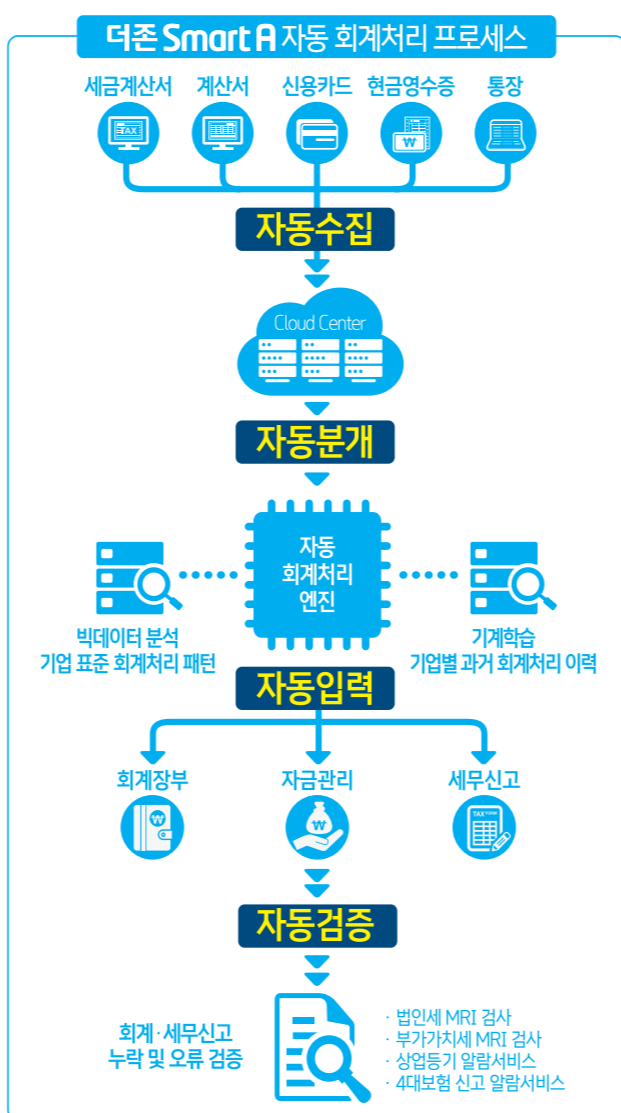
BC카드는 배우 공유를 모델로 내세워 브랜드 캠페인 '지금하세요, BC' 광고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 캠페인 광고는 '68'편, '애'편 등 두 편으로 제작돼 '해택이 가득한 BC카드와 함께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68'편은 올해 365일 중 월요일 및 공휴일이 68일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CGV 티켓 1+1 등 '빨간날엔 BC' 이벤트의 주요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중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현대차의 두 얼굴

‘기술탈취·특허찬탈’ 비제이씨에 일방적 거래중단 요구 물의
‘최순실 지인회사’ KD코퍼레이션에선 10억대 납품 대조적

현대자동차가 기술탈취 논란의 피해자인 납품기업에 일방적인 거래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양사는 현재 기술탈취와 특허찬탈 문제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화학제품 제조업체 비제이씨는 최근 현대차로부터 15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던 납품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현대차에 자동차 도장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

취를 제거하는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오는 6월 14일로 도장부스 수처리제에 대한 거래기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래 관계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현대차가 앞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업체에 기술탈취·특허찬탈 문제로 3억 원의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는 점이다. ‘갑의 횡포’라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조정위는 현대차가 사업 협력을 이유로 비제이씨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내 내부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술로 산학협력 특허를 냈다고 결

론 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강제력 없는 조중위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아, 관련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비제이씨 관계자는 “현대차와 15년 가까이 납품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납품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었다”며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약만료를 핑계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술탈취 및 특허찬탈의 범원 소송의 보복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며 “회의록 테스트 결과를 보면 현대차는 A사에는 약취 630으로 부적합을, 비제이씨는 약취 100으로 적합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납품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 만료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찰에는 친환경 조건을 강화했는데, 비제이씨는 공개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KD코퍼레이션의 납품관계와 대비되면서 ‘현대차의 두 얼굴’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현대차는 최순실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대의 제품을 납품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6월 3년 이상 동반성장지수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들이 한 해 동안 협력사나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노력을 다했는지를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안철우 기자 acw@

삼성도 LG도 “미래 먹거리 발굴, 스타트업과 함께”

삼성, 유망기술 기업과 M&A 지속... LG도 협력 확대 밝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M&A 혹은 협력 등 방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스타트업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

20일 LG전자에 따르면 정도현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사장)는 지난 17일 진행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 성장분야를 바꾸겠다”며 “자

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스타트업 등 외부 리소스를 활용해 신사업 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발언에 따라 그동안 다대 기업들과 달리 스타트업과의 스킨십이 적었던 LG전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LG전자는 총복합조정제센타와 손잡고 ‘우수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나 ‘LG G5 프렌즈’ 출시 당시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 외에는 스타트업과의 협력 사례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에 힘을 쏟으며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가 상용화되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가 더 두각을 보이며 협업을 통해 신성장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일찍이 스타트업에 눈을 돌려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M&A하는 방식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2014년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IoT에 초점을 맞추고 스마트싱스(IoT,

루프페이(전자결제), 비브 랩스(AI, 허만(전장) 등을 통해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소형 스마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홈에 포함되는 스마트TV, 냉장고 등을 삼성의 자체 OS인 ‘타이젠’을 통해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카에 장착되는 전자부품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하는 것도 목표다. 올해 들어 미국 음성 AI음성인식업체 ‘사운드하운드’와 전장부품업체 ‘테트라뷰’에 투자를 단행했으며, 공격적 M&A 및 투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LG 인버터 냉장고 글로벌 누적 판매 1500만대 돌파

LG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냉장고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500만 대를 돌파했다. LG전자가 2001년 개발한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는 뛰어난 온도 유지, 고효율, 저소음 등으로 프리미엄 냉장고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직원들이 LG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복귀 1년... “구원투수 역할 톡톡”

17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최신원(사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 회장은 적자 부문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SK네트웍스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SK네트웍스는 2013년 매출 25조9750억 원 영업이익의 2400억 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왔다. 특히 2015년에는 23년 만에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고, KT렌터카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힘든 한



해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강도 사업 재편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는 동양매직 지분 100%를 6100억 원에 인수하는 대신, 적자를 면치 못해온 패션사업부(옛 선경직물

을 현대백화점그룹에 3300억 원에 넘겼다. 또한 이달 초에는 SK가스에 LPG 충전사업과 충전소 유행자산을 3102억 원에 양도했다. 부진한 사업을 털고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향후 렌터카, 정비 등 카 라이프 사업과 가전 렌탈 사업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아직 카 라이프 사업은 전체 매출의 4%, 가전 렌탈 사업은 2.4% 가량을 차지하는 등 비중은 높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에 달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렌터카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7.2%에서

동양매직 인수·패션사업 정리 등 고강도 재편... 실적 개선 기대감

2015년 9.3%, 지난해에는 11.3%로 국내 2위인 AJ렌터카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시장에서는 SK네트웍스를 유력한 AJ렌터카 인수 후보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SK네트웍스가 LPG사업과 충전소를 SK가스와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것이 AJ렌터카를 인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구조 재편으로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분격화 될 것”이라며 “특히 렌탈시대에 SK매직과 렌터카의 성장성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LGD ‘나노셀 TV’ 생산라인 가보니

LCD 패널에 나노입자 덧입혀 색파장 보다 정교 ‘화질 종결자’

최대의 적 ‘먼지’... 공정 자동화

“나노셀은 LCD 중 최고 화질을 구현하는 진화된 기술입니다.”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생산단지. 165만5000㎡(51만3000평) 규모의 초대형 산업단지인 이곳에서는 LCD TV 고색재현 기술 중 가장 진일보했다는 나노셀 기술이 적용된 TV 패널 생산이 한창이었다.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연구원들이 나노셀 TV에 적용되는 편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나노셀은 LCD 패널 위에 약 1나노미터(nm·10억분의 1m) 크기의 미세 분자구조를 덧입힌 기술이다. 색의 파장을 나노 단위로 더욱 정교하게 조정해 보다 많은 색을 한층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날 취재진에게 공개된 곳은 P7공장의 박막트랜지스터(TFT) 공정이었다. TFT 공정은 LCD 패널을 만들기 위해 유리기판 위에 컬러 필터와 액정을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 막등을 입히는 것이다.

통로에 들어서자 유리 너머로 로봇이 1950mmX2250mm 크기의 원판 유리기판에 구리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리를 입힌 기판은 반도체 등에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인 노광기로 들어갔다. 생산라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LCD디스플레이 직원은 “디스플레이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물과 싸움”이라며 “모든 시스템의 조정은 작업 현장이 아닌 공장 1층에 마련된 원격조종실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생산된 기판은 R(빨간색)·G(녹색)·B(파란색) 컬러필터를 코팅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 뒤 모듈 공장으로 가고 고객사 완제품 공장으로 이동한다. 나노셀 패널은 LCD 패널이 만들어진 뒤 부착하는 편광판에 직접 나노크기의 물질을 덧입히면 완성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TV에 적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며 “TV에 적용되는 만큼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함께 5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테슬라 비켜”... 국산 전기차 ‘가성비’ 무장

다음달 출시 한국지엠 ‘볼트EV’ 보조금 받으면 2000만원대 구입 현대차 아이오닉은 1000만원대



‘억’ 소리 나는 테슬라의 한국 진출에 국내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19위’인 테슬라는 지난주 스타필드 하남과 서울 청담동에 잇달아 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입된 차량은 ‘모델S 90D’. 판매가는 1억2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풀옵션은 1억6100만 원이다. ‘공용 충전소 10시간 내 완속 충전’ 규정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차가 ‘억’ 소리 나는 이유는 또 있다.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 업체와 달리 다량의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맞춤 생산에 들어간다. 차량 색상은 물론 휠 사이즈,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등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첨단 사양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가솔린 못지않은 주행성능(제로백 4.2초) 덕분에 ‘모델S 90D’는 프리미엄 세단인 벤츠 ‘CLS클래스’와 BMW ‘6시리즈’ 등의 경쟁 모델로 간주한다.

테슬라의 한국 진출에 국내 자동차 업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순수 전기차 ‘볼트EV(사진)’를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주 받은 사전 계약에서 두시간 만에 초도 물량 400대가 모두 판매돼 그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 차의 출시 가격은 4779만 원이다. 국고보조금 14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20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가성비를 갖춘 데다, 1회 충전으로 383km 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제로백은 7초 남짓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아이오닉의 일렉트릭 ‘I(아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판매가격은 3840만 원이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1000만 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공식 인증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91km에 불과하지만, 광성주행과 회생제동장치를 적극 활용하면 300km 넘게 달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중한자동차 ‘켄보600’ 2차 물량 일부 이달 말 입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600’의 국내 자동차 시장 공략이 다시 시작했다.

중한자동차는 20일 중국 북경은상기차에 2차로 주문한 500여 대 가운데 200여 대가 이달 말 입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한자동차는 2차 물량을 들여오기 위해 ‘산 낚고 물 건너’는 조달 작전을 펼쳤다. 원래 켄보 600이 국내로 들어오는 길은 강과 바다를 통해서다. 북경은상기차의 공장에 있는 충칭에서 배에

선적해 양쯔강을 통해 황해까지 이동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2차 물량 주문 시기와 양쯔강 댐 건설 시기가 맞물리며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중한자동차는 500여 대 가운데 300여 대는 차량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켄보 600의 2차 물량 중 나머지 300여 대는 충칭에서 차량으로 상하이 인근의 항구까지 이동시켜 다시 배에 선적할 예정이다. 이 차량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배송 중 충격 없게 완벽 포장...高價 커피잔도 6번 낙하실험

유통가 팀파워 GS샵 품질관리센터

“현장에 가 봤어요?”, “본인 아이에게 먹어도 되겠어요?” GS샵의 품질을 검증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GS샵의 품질관리(QA)는 서류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다.

GS샵의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하면 업계 내 QA 통과는 문제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판난 GS샵의 품질연구센터를 찾아가 봤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GS샵 사옥 'GS강서N타워' 5층 품질연구센터에는 현황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자부심과 열정으로 넘치는 30명의 직원이 의류, 잡화, 속옷, 집구와 식품, 화장품 그리고 공산품 등 업종별로 영역을 나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짙은 품질관리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현장 이슈, 실제 상품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는 현장 업무가 가능하도록 탄탄하게 구축한 모바일 프로세스 덕분이다.

“철저히 현장 중심의 근무를 하고 있다. 사무실은 정해진 자리가 없는 모바일 오피스를 지향한다. 각각의 현장으로 달려간 직원들은 생산공장, 창고, 원재료 제조사 등에서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한 달이면 500건이 넘는 현장 데이터가 쌓인다. 해외에 있

2015년 '품질안전팀'서 새 간판 받아 엄격한 품질관리기준 업계서 정평

실시간으로 사진·동영상 데이터 축적 해외 공장·농장도 한달 3~4차례 방문

고객의견 빅데이터화 품질개선 시도 상품 기획·택배 배송 소과정에 관여

는 생산공장이나 농가도 한 달 3~4차례 방문해 품질 관리하고 있다.”-정웅식 품질연구센터 팀장 품질연구센터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기반을 둔 품질관리를 추구한다. 고가의 커피잔 세트도 6번 집어던져 문제가 없어야 합격이다. 예를 들어, 택배 배송 중에 얼마나 큰 충격과 몇 번의 낙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여기에 맞는 포장을 갖춰야만 검사를 통과한다.

“GS강서N타워 5층 품질연구센터 자리 맞은 편에는 낙하실험기준 표시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실제 배송차량과 제품에 데이터를 트래킹(tracking)할 수 있는 장치(Saver 3X)를 부착하고



GS샵의 상품 품질과 고객 안전을 책임지는 품질연구센터 직원들이 'GS SHOP QA(품질검사)' 풍선을 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 GS샵

배송과정 중 충격이나 낙하 정도를 측정한다. 새로운 제품, 사은품이 나올 때마다 '6번 낙하실험'도 진행한다. 품질연구센터는 제품 제작 사전단계에서부터 상품의 크기, 규격에 알맞은 규격화된 박스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프로세스가 있다.”-엄기초 차장

모든 품질관리 활동에서도 과학적인 실험과 데이터를 활용한다. 식품의 포장은 최적의 냉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로거(Data logger-

일종의 블랙박스)'를 장착, 24시간 동안 실제 배송 상황에서의 온도를 점검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상품에 알맞은 수준의 보냉제를 채워 제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수만 개가 넘는 고객 의견을 빅데이터화해 점단 분석기법으로 키워드를 뽑아내 개선에 반영하기도 한다. 고객들의 전체적인 의견, 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중심 사고에 방점을 두고 품질 관리

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의 상품평, 고객의 소리, 반품 사유 등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잠재적인 니즈를 찾아내고, 협력사에 제공하고 상품에 반영해 품질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윤호경 차장

그밖에 서류와 현장을 통한 검사 외에도 고객이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려고 사용법이 어려운 상품에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유튜브에 올려 실시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품질연구센터는 2015년 1월 '품질안전팀'에서 새롭게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한다. 안전을 뛰어넘어 상품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차곡차곡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지식, 기술을 축적하는 센터로 한 단계 격상됐다. GS샵의 모든 상품은 품질연구센터를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뿐 아니라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택배로 배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기준은 역시 고객이다.

엄기초 차장은 “개인적으로는 고객의 마음으로 '품질 배려 넘버원(value NO. 1)'을 추구하고자 한다. 품질도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라며 “내가 직접 사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QA를 진행하고 있다. 'GS샵이 파는 상품은 품질이 정말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ILDONG 일동제약

2016년 글로벌스타드경연대상
주최: 한국농림수산식품부

아로나민골드를 드신 날과 안드신 날의 차이! 직접 경험해보세요

피로가 노리는 곳은 근육과 신경입니다. 평소 약했던 곳에 쌓여 통증이 되기 쉬운 피로, 아로나민골드로 매일매일 풀어주세요.

2016년 한국산림의 브랜드 파워 종합평가부문 1위
주최: 한국농림수산식품부

하루 두 알!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피로 그날 쌓인 피로를 그날 풀어주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어깨통증 어깨와 목 뒤쪽으로 빠근하고 무거워요. 손가락 마디 관절통증도 있구요.

눈의피로 피로가 눈으로 먼저 와요. 눈이 침침하고 뻑뻑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책을 오래 못 봅니다.

신경통·근육통 신경과 근육에 쌓인 피로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려요.

병중병후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금세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니 피로회복도 더디네요.

활성비타민B1, B2, B6와 비타민C-는 근육과 신경에 쌓인 피로를 잘 풀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어 활력을 드립니다.

효능효과: 피로, 눈의 피로,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어깨통증/허리통증), 병중·병후 체력저하시

2016년 한국산림의 브랜드 파워 종합평가부문 1위
주최: 한국농림수산식품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처방된 사용법대로 잘 사용하면... 부작용은 없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은... *피로가 심한 약을 복용하는 분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처방된 사용법대로 잘 사용하면... 부작용은 없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은... *피로가 심한 약을 복용하는 분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은...

동아제약, 또 리베이트 혐의...본사·지주사 등 압수수색 첫 시험대 오른 강정석 회장

울초 오너 3세시대 열며 '공격경영' 기대 이미지 추락·매출 타격 위기 극복 주목



가 비리에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아쏘시오그룹의 실적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강정석(사진)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의 위기극복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초 오너 3세 시대를 연 동아쏘시오그룹이 공격 경영에 나서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로 입을 매출 타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본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 등이 지난 14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동아제약의 검찰 수사는 2008년, 2010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강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위기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부산지청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 원장과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어렵게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룹의 안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던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강신호 전 회장은 2004년 박카스가 광동제약의 '비타 500'에 밀린다는 이유로 둘째 강문석 씨를 동아제약 부회장에서 해임하고 강정석 회장을 후계자로 낙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실제로 2013년 동아쏘시오그룹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문제로 방의원 의사로부터 불매운동을 겪었고 매출도 12% 가량 줄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매출이 5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든데다 영업이익은 148억 원으로 73.2% 급감해 강 회장으로서 실적은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지난해 동아에스티가 받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 인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진취적인 제약사에 주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 참여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리베이트 규모를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 회장이 신약개발에 집중, 성과를 내려는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와 함께 그룹 안정화에도 신경 쓸 것"이라며 "과거 리베이트 전력 있어 이미지 개선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내가 진짜 最低價” 유통가 끝없는 가격경쟁

이마트 '가격의 끝' 상품 품목 대거 확대 위메프, 기저귀·분유 등 저가 판매 공세 롯데마트도 매달 100여개 상품 할인 홈플러스는 매주 테마별 아이템 선정

이마트몰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마트보다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최저가 경쟁에 불을 지폈다. 위메프는 이달 7일에는 원더배송에서 판매 중인 분유 129종 중 이마트에서 동일하게 판매하는 분유 118종에서 위메프 가격이 더 저렴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통업계 전반에 가격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가격의 끝' 프로젝트 경쟁을 촉발한 이마트가 올해에도 이 프로젝트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위메프가 기저귀를 시작으로 분유와 식품 등이 이마트보다 저렴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가 매달 100대 상품을 할인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가격경쟁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이마트는 지난달 9일 '가격의 끝' 품목 수를 확대하고 기존 품목은 소비자 호응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최저가를 유지해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메프는 같은 달 24일 직매입 배송서비스 '원더배송' 내 기저귀 17종을 대상으로

양사의 최저가 경쟁으로 가격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롯데마트도 경쟁에 뛰어 들었다. 롯데마트는 지난 14일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시즌에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과 생필품 중심으로 선정된 100여 개 상품을 한 달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100대 상품 新 가격제안'을 들고 나왔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 관련 매출이 전월 대비 66% 가량 성장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매주 테마별 특별 아이템을 선정해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에 나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불가 상승 등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올 한 해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rdn@

2017 골프업계 **신기술** 태풍이 몰려온다

4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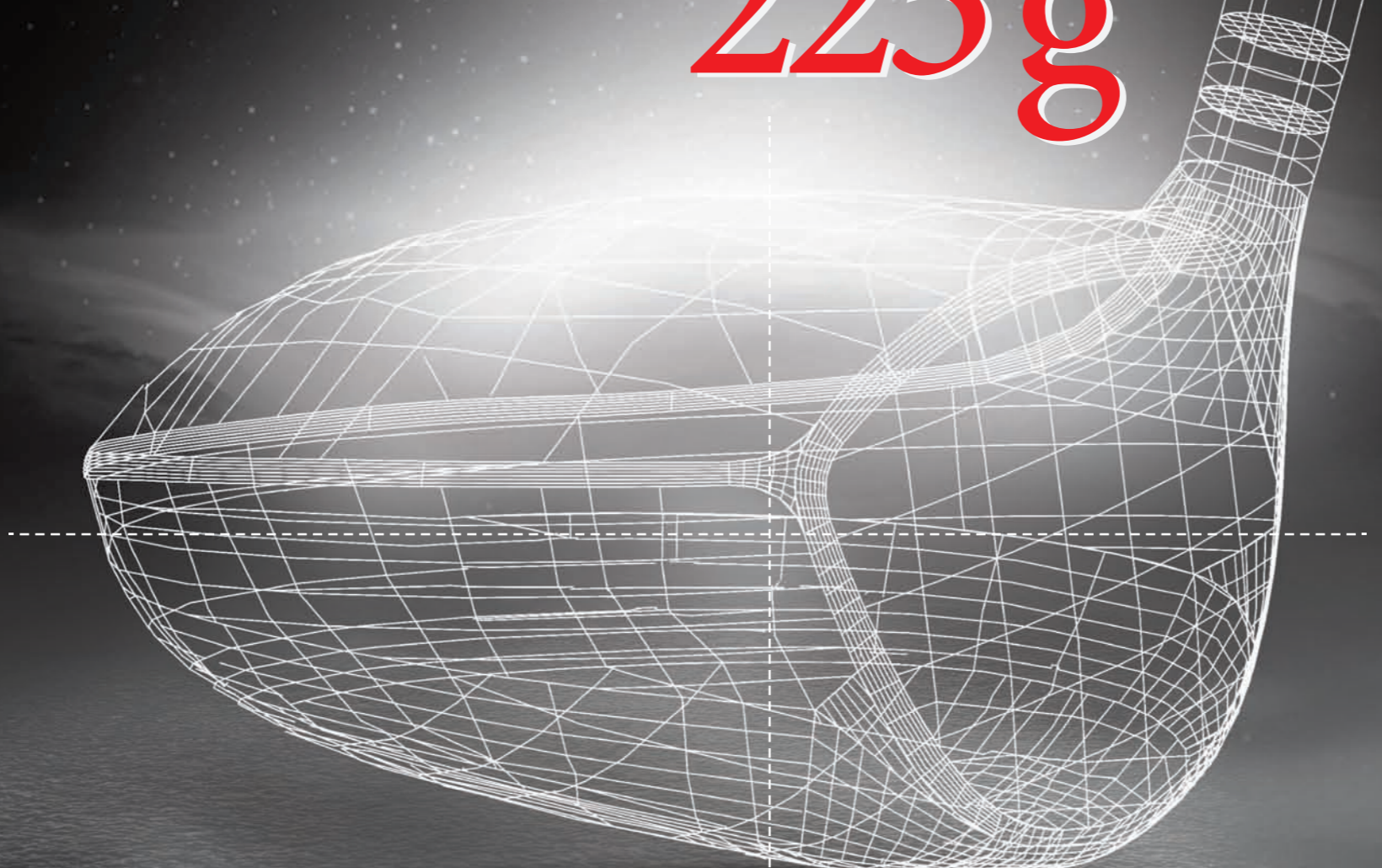
골프클럽 역사상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골프채**

누구나 치기 쉽고 편하다

각 골퍼별 최적화를 위한 무게 120종류
Swing Weight B2 ~

Total Weight 295g - 70g =

225g



중전보다 단허 맞을 확률 9배 증가로 **슬라이스가 없는** 클럽 설계 기술

설계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절반의 무게감을 느끼는** 스윙웨이트로

30yd 더 나가는 초경량 클럽 개발

▶ **예약 :** 첨단 기술 정밀 공법에 의한 제한 된 수량 한정 공급으로 우선 예약 접수
예약문자 접수 전용 **031-709-9055**
상담은 문자 수신으로만 예약 접수 후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전화 상담

상위 0.1%가 가장 선호하는
Premium Brand

SK건설, 이란 4兆 발전사업 진출

UNIT그룹과 주식 30% 양수도계약... 현지 최대 복합발전 건설

SK건설이 총사업비 34억 유로(약 4조1440억 원)인 5000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권을 따내며 이란 시장에 첫 진출한다. SK건설은 지난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니트(UNIT)그룹과 이란 민자발전사업권 확보를 위해 유니트인터내셔널에너지(社)의 주식 30%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안재현 SK건설 글로벌비즈니스 대표, 위날 아이살 UNIT그룹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터키를 방문 중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니트인터내셔널에너지는 UNIT그룹이 터키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 1월 23일 이란 정부로부터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권을 확보하고 이란 국영전력회사인 TPPH와 전력구매계약까지 완료했다. 특히 이번 전력구매계약은 이란 정부의 보증이 포함돼 사업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SK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이란 내 5개 지역에 5기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이란에서 추진되고 있는 발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발전소의 총발전 용량이 5000MW이고, 총사업비는 34억 유로, 공사비는 25억 유로(약 3조470억 원)에 달한다.

SK건설은 발전소 공사를 도맡아 수행할 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안재현 SK건설 대표(왼쪽 두 번째), 위날 아이살 UNIT 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SK건설과 유니트그룹 간 주식양수도 계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SK건설

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30%의 지분을 갖고 UNIT그룹(지분 70%)과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SK건설은 2018년 1월 사베, 자헤단 등 2개 지역에 각각 1200MW, 880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 들어간 뒤, 순차적으로 나머지 3개 지역에서도 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UNIT그룹은 개발형사업 수행 경험을 높이 평가해 SK건설을 이번 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SK건설은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터키의 유라시아해저터널 사업을 통해 사업개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운영까지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은 SK건설의 첫 이란 사업이면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란 민자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美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엔 '예고된 惡材'

“영향 제한적...입지별 양극화 예상”

입주물량 폭탄·규제정책 맞물려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상태에서 금리 바로 올리기에 어려운 상황 거래 둔화 속 지역별 희비 갈릴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됐던 이슈인 만큼 단기적인 타격보다는 입지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0.50 ~ 0.75%인 기준금리를 0.75 ~ 1.0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3개월 만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이슈인 만큼 시장에 선(先)반영됐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금리가 3% 수준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시장이 움직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입주 폭탄이 얽히는 '트리플 악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금융권은 이미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현재 주요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3.5 ~ 4.8% 수준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국공채와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금리에 민감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투자 수익률도 떨어져 전체적인 거래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예고

된 악재' 중 하나였던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가계 부채가 쌓여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미국을 따라 금리를 바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상승과 둔화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받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은 지난해부터 예상돼 왔던 만큼 전반적으로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분양 시장에서도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관심 지역의 경우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위원 역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둔화가 예상되지만 입계점을 지나지 않는 한 가격 급락이 쉽지 않아 전체보다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조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재주는 사천이 부리고 돈은 진주가 번다?

최영진의 현안진단

KAI, 미군 훈련기 제조 사업 수주에 사천 분양가 급등... 진주로 인구유출

경남 사천시는 한국우주항공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동 추진하는 미국 공군 노후 훈련기 교체사업(TX)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는 사천의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이 잘 돌아가면 주변에 관련 협력 단지도 대거 생겨나 고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소비 수요 또한 증가해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좋아진다.

TX사업은 1차로 공군 노후 훈련기 350대를 새로운 기종으로 바꾼 다음, 점차적으로 해군의 낡은 훈련기와 가상 적기 등 총 1000대에 이르는 기종을 교체하는 것이다. 금액으로 치면 200억 달러 규모다.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KAI가 맡게 될 부품 생산 물량이 엄청나 이에 따른 대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소리다.

TX사업을 맡게 될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12월쯤 보잉 컨소시엄과 KAI-록히드 컨소시엄 중에서 최종 승자가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요즘 TX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생산사업에 필요한 록히드 기술진이 속속 사천 KAI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현재 80여 명의 록히드 기술 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TX사업을 수주할 경우 그 숫자는 수백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 얘기가 들린다.

다른 생산 인력 증가도 그렇지만 외국 기술자가 대거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호전 국면을 맞게 된다. 고급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 지금 사천에 근무하는 외국 기술자 중에서 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 주로 외국인학교가 있는 KAI 근처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고급 기술진은 50평형대 아파트를 찾는 편이고, 일반 기술자는 40평형대에 거주한다.

임대료는 56평형의 경우 월 220만 ~ 260만 원 수준이고, 39평형은 180만 원, 34평형은 150만 원 선이다. 임대료는 임대 기간 동안의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다.

외국 기술자 유입을 감안해서인지 곳곳에 아파트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지난해 KAI 주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불티나게 팔렸다. 외국인 기술자나 KAI 근무자를 겨냥해 임대사업을 벌이기 위해 집을 구매한 투자 수요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기존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다. 분양가에 비해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9000만 원가량 올랐다. 입주 4년 차인 엘크루아파트 34평형의 시세는 2억 4000만 ~ 2억 8000만 원 수준이고, 39평형은 2억 9000만 ~ 3억 원이다. KAI가 TX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천 부동산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게 분명하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사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온기가 도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진주시로 주택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KAI의 고용 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이런 형국은 지속될 것 같아 재주는 사천이 부리고 돈은 진주가 번게 될 편이다. 부동산대기자 choibak14@

금주의 분양 캘린더

이달 넷째 주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6251가구가 분양된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아파트(뉴스테이)' 등 1723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구 '중흥S-클래스센트럴', 광주 남구 '광주호천시티프라자(비2)' 등 총 452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0 (월)	접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중흥S-클래스더테라스(-3/21)
	발표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롯데캐슬스타
	계약	경기	성남시	단대동	성남단대(행복주택1BL)(-3/24)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인천서창(행복주택15BL)(-3/24)
3/21 (화)	접수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호수공원아파트(뉴스테이)(-3/22)
	발표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코아루더테라스
	계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9-1구역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3/23)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단지(공공분양) (-3/23)
3/22 (수)	계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잠기전세A1-10BL)(-3/24)
	접수	충남	보령시	명천동	명천택지지구금성백조메이지(B3) 1순위
	발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살레아밸리스
	계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SK뷰아파트(-3/24)
경기		평택시	영이동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A2-1)(-3/24)	
3/23 (목)	접수	경기	용인시	영덕동	기흥혁신유티워 1순위
	발표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신도시자연&자이(A9)
	계약	부산	부산진구	초음동	부산연지꿈에그린
3/24 (금)	접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서울오류1(행복주택) (-3/24)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A16(영구임대)(-3/31)
	발표	경기	용인시	영덕동	기흥혁신유티워 2순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중흥S-클래스센트럴 2순위
3/25 (토)	접수	강원	강릉시	임암동	임암동강변코아루오트리움 2순위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아양리온프라자(2단지)
3/25 (토)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지웰플렉스1차

(주) *는 오피스텔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주) 오피스 단지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SPECIALTIES
1728.9552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08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6191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9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02)6965-2637 롯데아울렛 광명점 02)6226-2142 롯데아울렛 광교점 031)8064-2168 롯데아울렛 부여점 041)435-2608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02)2283-2118 현대아이파크백화점 용산점 02)2012-4146 AK플러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37 신세계백화점 총창점 041)640-5081 이타임빌드 02)313-4108 타임갤러리 070)8265-5528 이노아이 02)6002-6123 시계상사 031)441-0802 사본워치 031)463-9788 타임24 031)931-5555 WB(워치보이) 070)8632-5300 피크타임 031)506-3886 타임캘릭스 031)575-1866 패션아일랜드(에전) 042)280-9117 복와치 043)223-1333 명성시계 051)253-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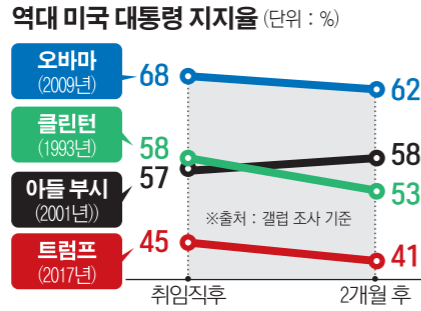
[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점 02)2136-2646 두타면세점 02)3399-9372 동화면세점 021)688-6680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2 신리면세점 서울점 02)2230-3397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064)780-7669 SM면세점 서울점 02)2120-6027

트럼프 지지율 뚝·뚝·뚝... 날개가 없다

〈취임 2개월〉

대통령 취임 초 50% 미만 처음 마러 커넥션 의혹에 연루 대립 '反이민 행정명령' 결정적 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2개월을 맞았다. 대통령 취임 직후 역대 최저였던 지지율은 더 떨어져 나 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는 45%였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1953년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사흘간 진행된 조사에서 지지율이 68%였다. 역대 대통령의 첫해 평균 지지율이 63%인 것을 감안해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수치다. NBC가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몽키와 함께 지난달 13~19일 미국 성인 1만15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3%에 그쳤다. 갤럽 조사에서는 41%였다.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는 취임 뒤 3개월 동안 지지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다. 결정적인 사건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이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

을 발동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발동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반발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는 지난 6일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수정해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러 커넥션 의혹도 트럼프 지지율 추락에 기를 부었다.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했고, 취임 이후 국가안보보좌관에 오른 마이클 플라너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결국 플라너 보좌관은 사퇴했다.

트럼프는 또한 대선 때부터 이어오던 언론과의 전쟁도 멈추지 않았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을 '가

짜 뉴스'라고 못박았다. 연례행사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도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장관 인준 속도도 더디다. 취임 두 달이 지났지만 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4명은 아직도 공석이다.

앞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에 달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를 시행할 때 2026년에 무보험자는 52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면 무보험자는 2800만 명 수준이다. 즉 트럼프케어 때문에 무보험자가 2400만 명 더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주택시장 버블 불안에 중국, 보유세 도입하나

중국에서 주택시장 버블 불안이 고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주택시장은 당국의 과열 억제책의 영향으로 최근 수개월간 둔화했다. 그러나 지난달 집값이 다시 뛰면서 더욱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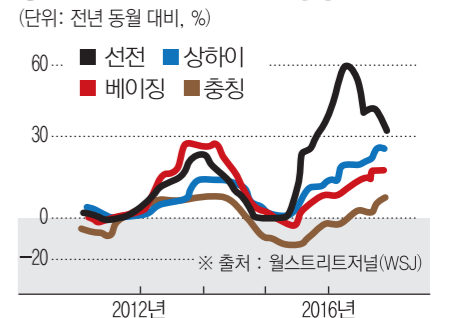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2월 중국 70개 도시 집값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6% 각각 올랐다. 70개 도시 가운데 전월보다 신규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56곳으로 1월의 45곳에서 11곳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면 중국 내 투기 열풍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루커화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부부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 법안 마련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시리우스대학의 허우이린 교수는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를 일찍 도입할수록 최근 수년간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였던 집값 안정에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국가의 완전한 소유였던 부동산을 1990년대 민간에 일부 개방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도입을 미뤘기 때문이다. 버블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등 일부 도시에서 럭셔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시행 운영해왔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관리도 부실해 집값 급등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하반기 5년 만에 치러지는 공산당 전국대회(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보유세 도입 논의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크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CEO 리운지 女CEO 연봉 男보다 많은 이유

유리천장 여전... 수요공급 법칙따라 고평가 男 우대 기업, 女 CEO 활용 부담 덜기 의도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남성 CEO보다 평균 800만 달러 높다."

작년에 미국 리서치회사 에퀴라가 S&P500지수 구성 종목 중 3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를 놓고 당시 경제 주간지 표준은 여성의 보수가 남성보다 낮다는 고정관념을 뒤엎는 결과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는 성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근거라는 식으로 해석했다. 과연 이것은 역할별인 동시에 여성 임금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신호탄일까?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최신호(13일자)에서 이런 표준의 보도를 반박하며 여성 CEO가 남성보다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표본이 가진 맹점이다. 조사 대상 341개사 중 여성이 CEO인 기업은 고작 17개였다. 즉 여성 CEO가 그만큼 소수라는 의미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 유리천장을 깨고 나온 여성은 극소수다. 공급 부족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유능한 남성 CEO보다 유능한 여성 CEO를 영입하는 일이 더 어렵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여성 CEO 연봉은

남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기업들이 여성 CEO에게 높은 임금을 줌으로써 변칙 의식을 느끼는 분석이다. 예컨대, 평소 사회 책임적 책임 의식이 낮은 기업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기부를 할 가능성이 크다. 도덕적인 변치부를 사는 셈이다. 같은 논리로 기업들은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죄책감을 소수의 여성 CEO를 활용해 덜어 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여성'이 CEO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점이다.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HBR는 최근 미국의 한 연구 결과,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8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여성 CEO 연봉 이야기를 여성 근로자 전제로 확장해서 '성별 임금 불평등이 완화됐다'고 말할 수 없다. 전체 경제 활동 인구로 따지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화기애애한 메르켈-아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정보통신박람회(CeBIT) 개막식에서 만나 매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양국 공통의 표준을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을 지킴"이라며 양국이 자유 무역을 견인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17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 제안을 했다. 거절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노버/AP연합뉴스

'주식회사 美' 트럼프 효과 잠잠

1분기 주당순이익, 전망치보다 저조 루비니 "과도한 기대가 재앙 불러"

월가에서 '트럼프 효과'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뉴욕증시에 트럼프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 따르면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S&P500지수 구성 기업의 1분기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증가율 4.9%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연초 전망치 12.3%에 비하면 후퇴한 것이다. 주가 고공행진에 기업 가치가 너무 고

평가된 것 아니냐는 불안도 제기됐다. 향후 1년간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한 S&P500 종목 주가수익비율(PER)은 최근 17.7배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러스 코에스테리치 블랙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너무 낙관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주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시장에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1위

고급맛살 브랜드

2016 세계 골프랭킹 1위 / 리더야고

Since 1963

링크트랙 포스터데이터 기준 고급맛살 카테고리 기준 판매 1위. '크래미'와 'Cram'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00. HANSUNG Enterprise

“한국 증시 상장 통해 茶 가치 평가받을 것”



저스틴 주 대표가 315타이완카페에서 밀크티 티백 등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티다

강남에 ‘315타이완카페’ 오픈한 저스틴 주 대표 전세계 24개국 진출… 창고형 카페 형식 매장은 처음 원가 20~30% 높지만 한잔 1500원 저렴한 가격에 제공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해 있는 ‘3시15분 밀크티’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15타이완카페’ 한국지점을 처음으로 오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론칭 다음날, 새 매장 분위기가 가득한 315타이완카페에서 창업자인 저스틴 주 신첸푸드(SHIH CHEN FOODS) 대표를 만났다. 이 카페의 주 메뉴는 대만을 찾았던 한국 관광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진 ‘3시15분 밀크티’다. 주 대표는 매장에서 직접 차를 우려내며 인테리어와 매장 구조에 대한 만족감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인들의 티타임 시간이 보통 오후

3시 15분인 점에 착안해 상호명을 ‘3시15분’으로 정했다는 주 대표. 그렇다면 한국 지점만의 특징은 뭘까 궁금했다. 그는 “창고형 카페 형식의 매장 오픈은 한국 이전 세계 지점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315타이완카페’는 창고형 마트와 카페를 결합했다. 진짜 일 차가 들어 있는 3시15분의 티백을 사용해 제조하면서도 한 잔에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티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만의 먹거리 누가끼 래커, 누가캔디, 팡리수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팔레트 단위로 진열 판매한다. 이날 주 대표가 가장 강조한 것은 품질이었다. 다른 밀크티 업체보다 원가

가격이 20~30% 높지만, 진한 차향을 유지하고자 고품질의 원재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액상 밀크티의 경우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향이 2.5배 진해진다는 것이 주 대표의 설명이다. 주 대표는 ‘3시15분 밀크티’의 한국 수출 비중이 16% 정도 된다며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특히 ‘315타이완카페’의 한국 증시 상장을 시도해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종합F&B기업 에티다와 협력해 매장을 오픈하고 매출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 ‘3시15분 밀크티’의 국내 유통사인 SC KOREA와 전략적 제휴도 맺었다. 주 대표는 “브랜드 개발 초기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해 온 끝에 좋은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다”면서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한국 증시에 상장해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양상우 한겨레신문 새 대표

한겨레신문사는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양상우(54·사진) 전 대표를 19대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기획재정팀장, 한겨레21 사회팀장 등을 거쳤으며 노조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 비상경영위원장, 제17대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양 대표이사는 지난달 10일 한겨레신문사 주주사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에 당선됐다. 전효철 기자 gradually@

“삼성전자·하이닉스 빼면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부사장 “주가순자산비를 1배 밀도아 현재 2150… 실제론 900선”

허남권(사진) 신영자산운용 부사장은 최근 투자책임자(CI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는 1900선 수준이라며, 여전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허 부사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오피스룸에서 열린 신영자산운용 투자자포럼에서 “코스피는 주가순자산비(PBR)가 1배를 밀도는 장기적인 저평가 국면 상태”라며 “정서상으로는 현재 2150선이 고점으로 판단돼 펀드 환

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PBR로 봤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00선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허 부사장은 “코스피가 지난 10년간 박스권을 횡보하는 동안 기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늘어 이익대비 주가인 PBR(주가수익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역으로 말하면 한국 주식의 투자가치는 더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가량”이라며 “두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가 1900선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

면, 여전히 한국 주식은 저평가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 부사장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보다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자금은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자 유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부사장은 “올해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상승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는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mik@

‘로큰롤 창시자’ 척 베리 별세

‘로큰롤의 창시자’로 불리는 척 베리가 18일(현지시간)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0세.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역 경찰은 이날 응급 전화를 받고 세인트루이스 인근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베리의 죽음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고향에서 한 달에 한 번 공연하기도 했다. 1926년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리듬앤드블루스 장르를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처음 입 연 홍석현 회장 “누이 흥라희 관장, 가슴 찢어진다 말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동생인 홍석현(사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은 19일 공개된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누이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부회장 구속’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더라. 그게 모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씨가 검찰에서 ‘이 부회장

구속 후 흥 여사와 흥 전 회장이 삼성의 실권을 잡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흥 전 회장은 “확인해 봤더니 최순실이 그런 얘기한 건 사실이더라”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국정 개입을 했다는 게)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심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들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흥 전 관장도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피가 통한 조카인데 당연히 가슴이 아프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 상황에서 (청와대) 강요가 됐던 야니건 거절하기는 한국 문화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등 여태까지의 풍토에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한편, 흥 전 회장은 지난 18일 중앙일보·JTBC 회장직을 사임했다. 그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표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국여성 인물사전

(75) 장렬왕후(莊烈王后)

인조의 繼妃로 간택... 2차례 예송논쟁 얽혀

1624(인조 2)~1688(숙종 14). 조선 제 16대 인조의 계비이다. 성은 조(趙)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아버지는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며, 어머니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은 전주 최씨(全州 崔氏) 대시간 최철건(崔鐵堅)의 딸이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15세가 되던 1638(인조 10) 왕비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인조의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가 1635(인조 13) 42세라는 나이에 출산하다가 숨지자, 1637(인조 15)부터 계비 간택이 논의되었다. 대신들은 인열왕후의 상기(喪期)가 끝난 데다 백성들에게 국모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대례를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조는 청황제에게 치욕스럽게 항복하고, 왕세자와 봉림대군을 심양으로 인질 보낸 상황에서 다시 왕비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신료들의 주청에 따라 조창원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다. 당시 인조는 43세였고, 장렬왕후는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장렬왕후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녀는 인조에 의해 경덕궁(慶德宮)에 유폐되기도 하고, 효종 내외가 사망했을 때 그녀가 지켜야 할 복상 기간을 문제로 두 차례의 예송 논쟁을 거쳤다.

군은 세자로 책봉하고, 인조는 강빈(姜嬪)과 이에 동정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 장렬왕후는 1649(인조 27) 인조가 승하하자 왕대비가 되었다. 1659(효종 10) 효종이 죽자 대왕대비가 된다. 이때 그녀가 입어야 할 복상(服喪)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논의의 중심은 기년설(年號說)과 3년설이지만, 이는 예송 논쟁 일 뿐 아니라 왕위 정통성, 군주권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먼저 서인이 기년설에 따라 상례를 치르자 1660(현종 1) 남인 허목(許穆) 등이 3년설을 주장했다. 송시열(宋時烈)은 효종이 맏아들이 아니므로 기년설이 옳다 하자 윤유(尹鑄)는 효종이 맏아들이나 다름없다 반박했다. 결국 송시열이 기년설을 고집해 기년복이 지켜졌고, 이로 인해 서인 집권이 공고해졌다. 1674(현종 15) 효종비인 인선대비(仁宣大妃) 장씨(張氏)가 죽자 서인과 남인에 복상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서인은 대공설(大功說)을,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했다.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 정권이 몰락하고 남인 정권이 성립하게 된다. 장렬왕후는 1688(숙종 14) 64세를 일기로 창경궁 내남원에서 사망했다. 시호는 자의공신위헌강인정숙은혜장렬(慈懿恭愼獻康仁貞肅惠莊烈)이다. 능호는 휘릉(徽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다. 이성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인조는 1645(인조 23) 장렬왕후가 풍질(風疾)을 앓는다는 이유로 경덕궁으로 옮겨가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강빈의 옥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645(인조 23) 소헌세자가 죽자 봉림대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한국유방건강재단 주최, 아모레퍼시픽 주관의 가슴 건강을 위한 러닝축제 ‘2017 핑크런’ 부산 대회에 참가한 5천여명의 시민들이 흥겹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내 가슴愛 333” 외치며 부산 시민 5000명 올해도 뛰었다

17번째 맞는 아모레퍼시픽 ‘핑크런’ 다대포 해수욕장서 첫 대회 시작 유방건강·자가검진 중요성 알려

‘3일 후, 3개의 손가락을 펴고, 3개의 원을 그려 자가검진을 실천함으로써,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하고자 2013년 선포한 것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10km, 5km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유방 자가검진 교육, 무료 유방암 검진, 상담 등 유방건강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익혔다. 김경호 아모레퍼시픽 홍보유닛 전무는 “지난 16년간 한국유방건강재단과 각 계각층 참가자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핑크런이 여성의 소중한 가슴 건강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여성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여성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된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해 국내 최초 유방암 환우를 위한 수술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는 착한 러닝 축제다. 이날 핑크런 부산대회에서 5000여명 참가자는 생활 속 유방 자가검진 슬로건 ‘아리따운 내 가슴愛(愛) 333’을 다 함께 외치며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렸다. 이는 양쪽 가슴에 매달 생리가 끝난

이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 ◆미래창조과학부 부정사법본부 <3급 전보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정원철 <4급 전보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 김광수 △우편사업단 소포사업과장 류대규 △대전우편집중국장 우순만
-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최상현
-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승진 △지역공동체과장 황기연 △재정정책과장 조영진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디자인과장 황승진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장 배경택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전검역소장 홍성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김기석 △국립공주병원 임상검사과장 김동원
-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권병윤 △중앙도지사유위원회 상임위원 유병권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권

- 용복 △항공정책관 구분환△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이탁 △과장급 전보 △주택정책과장 김영국 △항공정책과장 윤진환 △과장급 파견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정책과장 김근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순영
- ◆국세청 △교위공무원 승진 △부산국세청 조사2과장 오호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여의도세정보담담당관 장일현 △국세통계담당관 최영준 (서울국세청) △송파세무서장 최대열 (부산국세청) △김원용 △초읍 세무서장 △거창세무서장 박수급
- ◆산림청 △교위공무원 승진 △북부지방산림청장 이마라 △과장급 직위승진 △산림복합지정정책과장 하경수 △과장급 전보 △산림정책과장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 이상익
- ◆중소기업청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장 이형철 (전보)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장 김병덕
-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진광현 △총무지원실장 김종현 △계약제도실장 송

- 광일 △건설진흥실장 이재식 △SOC-국제협력실장 강영길(문화홍보실장 겸직) △정보관리실장 강세화 △화원고충처리센터장 황승현 △감사실장 진장욱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파견 박승화
- ◆국방기술품질원 △보직 임명 △획득연구부장 이기영 △유도전자센터장 김인식
- ◆한겨레신문사 △보직 임명 △편집인 전무이사 김중구 △재무담당 전무이사 윤종훈 △영업담당 상무이사 이승진 △고문(비상근)정영무 △사외이사(비상근) 박병원 박용대 오창익 이근승 이상규 조영탁 △감사 이상근 △편집국장 이재훈

- 부 교통물류실장)·병화(서울동천학교 교장)씨 부친상, 이주호(마플컨설팅그룹 미디어부문 대표)·윤용발(성동구청 유도감독)씨 장인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02-3410-6917
- ▲백중국(한화생명 베트남법인장)·종민(제이&이씨)씨 부친상, 이윤우(디자인 루페 대표)씨 장인상 = 18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21일, 032-340-7300
- ▲지승동(대명루현 회장)씨 모친상, 우중(대명종합건설 대표이사)·우재(대명수안 대표이사)씨 조모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02-3410-6902
- ▲배태유(KBS 순천방송국 기자)씨 장인상 = 19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1일, 062-250-4410
- ▲강석찬(화성현과 대표·전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씨 장모상 = 19일, 수원요양병원, 발인 21일, 031-640-9785
- ▲이상한(경향신문 광고관리팀 부장)씨 부친상 = 19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21일, 033-741-1992

부음

- ▲이상홍(육군 중령)·지순(천체교육 차장)·지나(약사)씨 부친상, 광병호(세화정유 대표이사)·김현영(중앙일보 심의실장)·김상윤(대법원 재판연구관)씨 장인상 = 17일, 영남대병원, 발인 21일, 053-620-4231
- ▲권병배(범성저원 대표)·병윤(국토교통



동성제약 창립 60주년기념 송음건강마라톤대회
 동성제약의 창업자 송음 이선규 명예회장의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신을 계승하고자
 송음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SONGEUM HEALTH MARATHON

송음건강마라톤대회

2017.04.29(토)

성균관대학교 도봉선수촌

경품
 300만원 상당
 상온 직수 수소수생성기 하이젠



대 회 명 : 송음건강마라톤대회
 대회일시 : 2017.04.29.(토) 08:00~12:00
 대회장소 : 성균관대학교 도봉선수촌
 대회부문 : 하프, 10km, 5km, 5km 가족걷기
 대회시상 : 정규시상 : 각 부문 남녀 1~5위(건타임)
 이벤트시상 : 각 부문 남녀 6~30위(넷타임)
 참가대상 : 3,000여명(선착순 접수)
 주 최 : 동성제약(주)
 주 관 : 아람비
 후 원 : 도봉구청,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 찬 : 솔고바이오, 자이글
 참가신청 : www.songeum.com
 문 의 : 송음건강마라톤 운영사무국 031.821.9949

하프 1~30등(남·녀) 10만원 상당 리투엔 2종 SET



10km 1~30등(남·녀) 7만원 상당 테비안 2종 SET



5km 1~30등(남·녀) 5만원 상당 에이씨케어 비즈 2종 SET



참가자 기념품
 5만원 상당
 화장품 3종 SET



경품
 22만원 상당
 자이글 핸섬





공병호의 독서산책

신 기요시 'VR비즈니스'

앞으로 어떤 상품이 각광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산업에 돈이 몰릴 것인가. 체험과 개인화란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은 독특한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전망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신 기요시, 'VR 비즈니스'는 체험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활짝 열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VR(가상현실)를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다. 2016년은 'VR 원년'으로 불린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둘 출시된 해였기 때문이다. 헤드마운트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상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보여주는 가상현실 기술이다. 고글 속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마치 가상공간에 자신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도록 해 준다. 이런 경험은 자신이 화면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으로 느끼게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VR는 콘서트를 직접 관람할 때의 체험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TV는 DVD를 감상할 때와 같은 이 체험을 해준다. 멀리 떨어져 열연하는 아티스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일 뿐이다. 아무리 고해상도가 달성되더라도 마치 공연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VR이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2장과 3장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전선을 달린다'는 소주제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VR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와 특성, 그리고 VR 이후에 어떤

이민학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일류국가는 예외 없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정 자립이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 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정권을 가진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 세수 비중은 40%이고 스웨덴은 50%를 넘고 평균이 35% 수준인데 한국은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획기적 재정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지역 간 격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혁신도시 이전 등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악화해 GRDP 지니계수는 0.218로 OECD의 최하위권에 불과하다. 중앙정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分權化의 열쇠

부가 중심이 된 지역 발전 전략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은 지역포괄양양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성장 한계 극복의 실질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응능원칙(지불 능력에 따른 과세)의 국제적 양적(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방세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의 한계가 지방 재정자립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과잉 투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지자체가 관측 활동을 하는 것도 지자체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기업 육성에 노력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지방과 국가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을 재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조세의 목표는 국민, 기업, 지방과 국가가 선순환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50%를 지방세화

하는 것이 지자체와 지방기업의 선순환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일류 국가들의 법인세 중 지방세 비중이 30% 이상인데 한국 법인세의 지방세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와 능력이 더 중요하다. 대기업 유치에도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파주 LCD 단지의 유치 활동에서 부각된 바 있다. 그런데 파주 단지의 납부 세액에서 지방세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들은 정작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 활동은 대체로 관심이 없다. 2015년 국가 세입에서 법인세는 45조 원이고 현재 10%는 지방세화돼 있으므로 50%를 지방세화한다면 추가로 20조 원 내외의 지방 재정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35%라는 OECD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정자립보다 중요한 효과는 지자체들이 담배보다 기업 유치와 발전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

게 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선순환 발전이 이룩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대기업의 법인세 성격이다. 전국 기업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가 특정 지자체의 수입이 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지방정부 전체의 공동 예산으로 할당하고 지방정부 간의 경쟁 유도를 위한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은 2008년 세제 개혁 이후 지방특별법인세의 일부를 지역격차 해소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지역격차 해소의 원칙도 결과적 보상이 아니라 발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에 의한 발전이다. 법인세의 50% 지방세화로 지역격차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 법인세를 낙후지역의 발전 성과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경쟁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지자체가 담배 관측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면 국가 전체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스마트폰... 그 다음 주자

만든다. 여기에다 현실에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더한 AR(증강현실)과 함께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리고 있다. 저자의 결론은 명쾌하다. "VR야말로 컴퓨터, 스마트폰에 이어 IT·인터넷 혁명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솟아날 것이다." 왜 이 분야가 뜰 것으로 보는가. VR는 압도적인 몰입감과 현실감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VR가 제공하는 독특한 몰입감이란 체험은 고해상도의 TV가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경험이다.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고해상도를 향해 달려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탁월한 고해상도 텔레비전이라도 눈앞에 있는 사각형 디스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화면과 나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몰입감은 압도적이다. 마치 그 현장에 자신이 와 있는 듯한 기분과 느낌을 갖

산입들이 덩달아서 각광을 받을 것인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장기 불황에서도 가능한 독특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 영역에서 많은 사업 기회들이 등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VR의 부상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VR 이후에는 무엇이 등장하는 것일까. 증강현실이라 불리는 AR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실의 풍경(실사)과 비슷한 정보를 겹쳐서 현실 세계를 증강한다는 개념이다. VR가 실현하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주로 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서, AR는 현실 세계와 겹쳐서 실내의 어디에서나 사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복합현실(MR)'이다. AR가 정보를 겹치는 기술이어서 실사와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데 반해서 MR는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세계이다. 틸트이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을 준다.

6·25 전쟁은 남침(南侵)이 아니라, 북침(北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6·25전쟁은 북한이 남침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남한이 북한으로 침입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어느 날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북침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학생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을 물었더니 "북한이 침략해 왔으니 '북침'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학생은 이념이나 사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저 단순히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옛날 공안정국이었던 이 학생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잡혀가 적잖



남침(南侵) 북침(北侵)

은 고초를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싹 소름이 끼쳤다. 남침, 북침에서 남과 북은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부사이다. 즉 '남쪽으로', '북쪽으로'라는 부사로, 뒤에 오는 '침' 즉 '침략하다'라는 말을 꾸미고 있다. 그러므로 남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입했다는 뜻이고, 북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입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용례는 매우 많다.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사용

하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말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의 '동쪽으로' 젖어 들어왔다는 뜻이고 '북진통일(北進統一)'의 '北進'은 '북쪽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추사 선생이 신라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한 후, 비를 보호하기 위해 비각을 지었을 때 쓴 현판 '북수고경(北狩古鏡)' 또한 '북쪽으로 국경을 넓혀 나가다'라는 뜻이다. 한자에 대한 기본 식식만 갖추어도 학생은 "북한이 침략해 왔으니 '북침'이 맞지 않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인 이상, 국어교육에서 한자 교육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카드로 보는 세상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는 새내기들. 그러나 실제로는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졸업 후 취업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동아리 활동은 가급적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길로 선택하고, 취업 컨설팅도 미리미리 듣느라 바쁩니다. 선배나 동기들과의 모임에 시간을 뺏기지 않더라도 '아싸(아웃사이드)'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취준의 골목에 갇혀버린 대학 캠퍼스, 낭만과 지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Lycm0v>

온라인 와글와글



저출산 계속되면 2060년 신생아수 20만명 "미래가 어둡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통계청 전망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이대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2060년엔 신생아 수가 2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전망한 42만4000명보다 1만8000명 적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가 올해 39만7000명,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 명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원은 "이런 추이가 계속되면 가입여성 수가 감소해 신생아 수 감소는 갈수록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티즌들은 "정말 미래가 어둡다", "정부가 제대로 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먹고살기가 힘들니 누가 출산을 생각하겠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ry0403@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존 리와 함께하는 주시투자



메리트자산운용 CEO

자녀를 박스에서 꺼내라

어디에 있을까? 학원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몸이 갇히면 생각도 갇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포기한 채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칭찬한다.

수능과 비슷한 시험으로 미국에는 SAT가 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大書特筆)하는 일은 없다.

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수능 만점의 경력만 가지고는 결코 뛰어난 인재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인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천성적으로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며 직접 해보려는 욕구에 가득 차 있다.

우리의 교육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하는 공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하는 공부는 아이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경쟁력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를 박스에서 꺼내자. 우리 아이들은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박은평의 개평(概評)

정책사회부 차장



空約 우려되는 일자리 公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남은 시간은 50일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에 국민들은 인물뿐만 아니라, 공약(公約) 검증까지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번 대선 공약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자리이다. 장기 불황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것이다.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걸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환경을 조성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당국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25% 값싼 실손보험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구(舊)상품과 가격에서 별반 차이가 없으면 소비자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근로수당 지급으로 2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일자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5년 동안 대기업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선 때마다 남발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公約)은 선거 이후 대부분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저성장과 고령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자리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실업의 고통은 한 가정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경제 곳곳에 파편처럼 튀어 경제에 '동맥경화(動脈硬化)'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업의 고통은 한 가정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경제 곳곳에 파편처럼 튀어 경제에 '동맥경화(動脈硬化)'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객석

조태희 니트로아이 전략기획실 차장



사랑해, 조용준

퇴근 시간이 몹시 기다려진 적이 있었다. 어떤 매뉴에 어떤 솔로 한잔하자고 회사 동료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보낸 지금도 여전히 퇴근 시간이 기다려진다.

자녀 10살 초사내 녀석이 태어났다. 아내의 10시간 진통 끝에 태어난 녀석과의 만남, 벌써 160일이 훌쩍 지났다.

임신기간 아내와 성장일기를 쓰고, 임신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아우르는 육아 블로그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개월 차에 접어들어 지금 육아일기는 커녕 아내는 밤새 여기저기 블로그를 찾아다니며 이우식 혹은 또래 아이들의 행

동 습관을 찾아보기에 여념이 없다. 나 역시 집에 가면 보채는 아이를 안고 있기 바쁘다.

요즘 우리 부부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돌이 지나고 나면 아내는 부작할 계획이다.

대선이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여러 대선 주자들은 하얀빛꽃 활날리는 유세 현장에 서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같이 가지, 함께 하는 동행(同幸),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行)을 외칠 것이다.

“오늘도 밝은 미소로 멋진 하루 보낼 거지? 사랑해, 조용준”

기자수첩

박규준 기업금융부/abc84@



끝까지 요란한 新실손보험

말쭙하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 하나. 다음 달 1월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신상품에 대한 업계 분들의 솔직한 심정이 공명했다.

“신상품을 가족에게 추천할 거냐?”고 물었다. 한 분(A보험 대리점)은 “자기부담률은 오르고 보장은 줄어드는데 가격만 착해지면 뭐하냐”고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에 대대적인 공을 들였다.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이로써 기본형 가격은 확 내리고(약 25%), 특약의 자기부담률을 늘리고 보장을 줄여 모두 가입해도 가격이 소폭(약 7%) 하락한다.

물을 올렸는데 보험료 내린다고 자랑하는 건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신상품 가격 통제 논란도 일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내뿜은 가격 인하 폭을 업계에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 입장에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25% 값싼 실손보험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구(舊)상품과 가격에서 별반 차이가 없으면 소비자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本報,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and 廣告部.

Large advertisement for '우리말 마아?' book series, featuring a book cover image and promotional text about Korean language learning for children.

직접 봐야 직성 풀리는 '품질 고집'... 현장에서 답 찾는 百戰老將

CTO를 만나다

②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1999년 회장 부임 3개월여 만에 잔고장 많던 '카니발' 직접 분해 문제점 찾아 '국민 미니밴' 성장 '현장서 보고·느끼고·해결한다' 三現주의 실천 위해 세계 누벼 傘壽 앞둔 나이에 지구 한바퀴



정몽구 회장은

△강원도 통천 출생(1938년) △한양대 공업 경영학과 졸업(1967년) △현대건설 입사(1970년) △현대자동차 이사(1973년) △현대자동차서비스 사장(1974년) △현대정공 사장(1977년) △현대강관 사장(1981년) △현대차량 사장(1985년) △현대그룹 회장(1995년) △현대 종합상사 회장(1996년)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 대표이사 회장(1999년)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회장(2000년) △현대제철 상임이사(2005년)

“지금 당장 제 집으로 차 가져오세요!”

1999년 3월, 기아자동차 임원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졌다. 출시된 지 1년도 채 안 된 '카니발'을 당장 가져오라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시였다. 잦은 고장으로 고객 불만이 쌓여가던 터라 임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라는 착잡한 심정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정 회장의 집으로 차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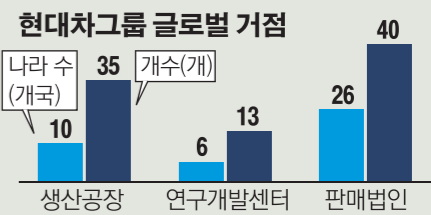
그로부터 한 달 후,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 있던 서울 여의도 본사에 연구·생산직 임원이 총집결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정 회장은 손에 분필을 쥐고 차량의 시트 밑, 문틀 등을 가르키며 “여기, 그리고 여기, 당장 고치세요”라고 지시했다. 한 달간 직접 차량을 분해해 문제점을 찾아낸 그의 고집에 임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지적 사항을 받아들였다.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정 회장의 해결책은 적중했다. 출시 초부터 말 많고 탈 많던 '카니발'은 지난해에만 6만6000대가 팔려 나갈 정도로 급성장했다. '대한민국 대표 미니밴'이란 수식어도 달았다. 그의 품질경영 고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품질 고집 = '카니발 사건(?)' 이후 정 회장은 쏟아지는 리콜 요청과 품질 불량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한 톱소에서 현대차가 조물거리로 전락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정 회장은 '10년·10만 마일 보증 수리'로 승부수를 띄웠다. '2년·2만4000마일 보증'이 일반적이던 상황에서 그의 결단은 그야말로 무리수였다. 모두가 곧 보증을 철회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품질 자신감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 1999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16만4190대를 기록했다. 그 이후 미국에서 현대차는 일본 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슬로바키아 질리나시에 위치한 기아차 유럽공장을 방문해 담당 임원들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7년 현대차그룹 사업계획

(단위: 대,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한국	166만7000	174만8000	4.9
내수	65만7000	68만3000	4
수출	101만	106만5000	5.4
해외	319만1000	333만2000	0.04
중국	114만2000	125만	9.5
인도	66만2000	67만2000	0.015
미국	38만7000	38만	-1.7
체코	35만8000	35만	-2.4
기타	64만2000	68만	5.9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정 회장의 품질 경영은 '안정화'에서 '고급화'로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제네시스' 개발 당시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 들른 정 회장은 차량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하부를 좀 보자”고 말했다. 리프트 아래로 직접 들어가 차량 아래쪽을 천천히 살피던 그는 동력장치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적은 '제네시스'가 2014년 미국 고속도로보험 안전협회(IIHS)에서 실시한 충돌시험에서 승용차 세계 최초로 29개 전 부문 만점을 받는 계기가 됐다.

그는 품질 관리 체계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부임 첫해인 1999년 생산·영업·AS 등으로 나뉘어 있던 품질 관련 기능을 묶어 품질총괄본부를 발족시켰다. 한 달에 한 번 품질경영회의도 열었다. 물론, 회의는 정 회장이 직접 주재했다.

정 회장의 품질 경영 고집은 해외에서도 인정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컨설팅 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17 내구품질조사(VDS)'에서 현대차는 19개 브랜드 가운데 3위(133점)에 올랐다. 기아차는 6위(148점)에 랭크됐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산수의 나이에도 글로벌 전장 누벼 = 정 회장의 품질경영에 대한 고집은 현장경영으로까지 이어진다.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해결한 뒤 확인까지 한다는 '삼현 주의(三現主義)'를 실천하기 위해 산수(傘壽·80세)를 눈앞에 둔 나이에도 글로벌 전장을 누비고 있다.

4만4000km, 백전노장 정 회장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정 회장이 6개 국가 생산현장을 오간 거리다. 3개월 만에 지구(약 4만km) 한 바퀴를 넘게 돌은 셈이다.

특히 그의 현장경영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한다. 노조와의 갈등으로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지던 지난해 하반기, 정 회장은 러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를 순방하며 생산·판매 현장을 점검한 뒤, 곧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미국 판매법인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우수 판매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후 중국 창저우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공언했다. '백전노장'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열린 해외 법인장회의에서도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심기일전하자”고 현장 임직원을 격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돈 생각하지 말고 좋은 엔진 만들어라”

자율주행車 제작 '품질경영' 주도

'지능형안전기술센터' 신설 조직 일원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라. 앞으로 파워트레인 연구에는 아예 예산 한도를 없애자. 돈 생각하지 말고 좋은 엔진 만드는 데만 신경 써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품질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타협하지 않는다.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경영 철학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취임 초기, 엔진 멈춤 현상이 보고되자 즉각 해외품질상황실을 설립해 1000억 원이 넘는 전수조사 시스템을 만든 것은 유명한 일화다. 정 회장은 품질경영회의를 직접 주도하고, 신차와 관련해서는 품질을 직접 확인할 정도.

정 회장은 현대차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커넥티드카·전기차·자율주행차 등으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래 자동차 핵심 영역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책임과 내실을 강조하면서도 경영 철학인 품질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최첨단 기술 개발로 어떠한 사고에도 고객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은 우리의 기본 철학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과 인프리를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의 뜻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올해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최근 자율주

행과 커넥티드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에는 10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며, 2020년까지 28종 이상의 친환경차를 출시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인력 보강과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주행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을 하나로 통합해 확대한 '지능형안전기술센터'를 신설했다. 센터장으로는 자율주행차 연구 부문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진우 박사(상무)를 영입해 자율주행차 시장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형안전기술센터 설립으로 연구개발본부 내에서 첨단안전기술과 선행연구 조직으로 이원화됐던 자율주행 연구개발 조직을 일원화해 시너

지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내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상대로라면 현대차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 회장의 장남인 정오선 현대차 부회장이 전방을 진두지휘한다. 정 부회장은 올초 CES,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 미래 자동차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이 부문 시장 선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비타민 전문기업 고려은단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 독점계약 | QUALI-C 인증마크 획득 | GMP 인증! 철저한 품질관리

비타민C에 비오틴, 비타민D를 더한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고려은단 프리미엄 비타민C 골드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70년

240개 2485mg 건강기능식품

300개 3000mg 건강기능식품

[201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부기질부문 생산실적기준 매출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080-277-0006 | www.koreaeundan.com

'ICT 발전지수 세계 1위'면 뭐해... 초융합 가로막은 규제장벽

'ICT 정책' 손발 안 맞는 정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이처럼 초융합시대의 ICT 중요성을 강조 하지만 현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개혁관청이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한 개선이 거듭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의 장벽은 높다. 규제 혁신과 ICT 초융합 시대를 이끌어줄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다.

◇주무부처 홀로 해결할 수 없는 ICT 초융합 = 우리나라 ICT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ICT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는 2015년 기준 8.93점으로 세계 1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걸출한 성적표에 대해 “인구 대비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등 주로 하드웨어와 인프라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덕에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ICT 기초체력이 뛰어나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분야별 벽을 허물어 융합의 시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ICT 융합이 절실한 시점에 미래를 대비한 준비지수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탓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스위스투자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2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일본(12위)이나 대만(16위)에 비해 뒤쳐진 수치다. ICT 분야별 경쟁력은 글로벌 수위를 달리고 있지만 초융합이 관건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보수적인 정부 정책이 발목을 붙잡은 셈이다.

오는 7월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 규제가 복잡해 도입 부담이 컸지만 지난해 민간 기업(한국NFC)이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냈고, 규제 간소화 조정안을 가까스로 받아내 서비스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 4차 산업혁명의 단초로 여겨지는 핀테크 산업 역시 촘촘한 규제 탓에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여러 개의 법안이 복잡

ICT 발전지수 (기준 : 2015년) ※자료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 발전지수 국가별 순위 (기준 : 2015년)		
인터넷 접속 가구비율	98.5(점수)	1위	1	한국	
ICT 활용능력	9.82	2위	2	덴마크	
ICT 이용도	8.42	4위	3	아이슬란드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59.5	4위	4	영국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38.8	6위	5	스웨덴	
ICT 접근성	9	9위	6	룩셈부르크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108.6	13위	7	스위스	
인터넷 이용자 비율	87.9	15위	8	네덜란드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78.3	37위
ICT 발전지수(종합)	8.93	1위	82	중국	

한국의 분야별 ICT 경쟁력은 글로벌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 뉴스시

하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내도 금융위원회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 한국보다 뒤늦게 핀테크 산업을 시작한 중국은 벌써 우리를 4~5년 앞질렀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겠다’는 중국의 사후규제 기초가 금융발전에 고스란히 녹아든 덕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방식, 이른바 ‘흑묘백묘’ 경제론이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 인민은행의 ‘제3자 지급결제업 허가’다. 은행이 독점해왔던 지급결제 서비스에 정부가 제3자 진입을 허용했다. 일단 시작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개선안이 핀테크 발전을 이끌어냈다. 알리페이(Alipay)와 텐페이(Tenpay) 등 제3자 지급 결제 방식을 지닌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

기존 금융산업의 기득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를 이롭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국의 핀테크 혁신을 키웠다.

자율주행차 역시 세계적 기술을 지녔으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보험관련 규제에 묶여 발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책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AI에 몰릴지, AI의 제조사나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여전하다.

한국, 4차 산업 준비지수 25위에
촘촘한 규제에 핀테크 산업 ‘답보’
자율주행차·VR게임도 마찬가지
중은 사후규제...금융산업 급성장
알리페이 등 핀테크 혁신 이끌어
대통령 직속 총괄 조정기구 필요

당장 우리 주변에 속속 생겨나는 VR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VR방 또는 AR방이 늘어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에 이은 또 하나의 놀이문화다. 그러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입장권 수익과 음료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다. VR게임은 명목상 서비스인 셈이다. <사후 규제 앞세워 초고속 성장한 중국 금융산업 =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전체를 관할할 조직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약 1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관청이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역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를 잘 활용한 신산업 창출 노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의료,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관련 규제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관련 주무부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차기 정부가 일찌감치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가정 아래 최소 6개월은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범부처 차원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부 부처는 제각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총괄해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태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한국의 기술 수준 23위인 데 비해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라며 “새로운 혁명시대로 이어지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미래부 'MWC 2017' 결산 간담회

“포괄적 정부지원 없다면 中에 뒤처질 것”

中 ICT업계, 5G 첨단기술 탁발 추격중
우리기업은 법·제도에 막혀 서비스 한계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열렸던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약진하고 있는 중국 ICT 기업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MWC 2017'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MWC 2017에 직접 참가했던 산업계와 전문가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해 MWC 전시에서 느낀 소감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특히 국내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 개선과 포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흘러나왔다.

참가자들은 이번 MWC에서 5G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단연 돋보였다고 인정했다. 5G는 10배 많은 초연결, 10배 짧은 저지연을 구현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자

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5G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 ICT 업체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위협 요소다.

이를 의식한 듯 최재유 차관은 “이번 MWC에서 화웨이 전시관은 대단했다”며 “통신장비부터 클라우드까지 기술력을 과시한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5G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 완화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익 KT CR지일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은 “우리나라도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별적으로, 통합된 형태로 가든 세일즈를 위한 형태로 가든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필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MWC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부스가 흠뻑 젖어 있어 홍보가 잘 안 됐던 부분을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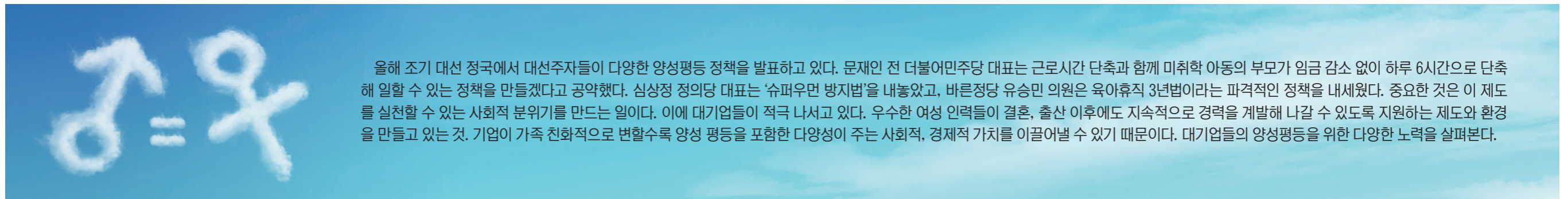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자연형태에 가까운 오메가-3

rTG 오메가3

- 01**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오메가-3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불순물과 포화지방산 함량 최소화
- 02** 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빛, 공기, 습기를 차단하는 흰색 불투명 PVC 포장 채택
- 03** 추출과정에서 원료의 손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50°C 이하의 저온 추출방식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기생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6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놓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에 대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결혼,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기업이 가족 친화적으로 변할수록 양성 평등을 포함한 다양성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내 어린이집 13개... 정원 4년새 2배 늘려

삼성전자 '남녀평등주의' 원칙
여성 비중 국내 26%·해외 54%
해외의 주재·어학연수 기회 등등
자녀 12세까지 육아휴직 가능
민간기업 첫 모유유축실 마련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지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인력을 우대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중)

삼성전자는 이견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한 1993년 하반기 대졸사원 공채에서 여성 전문인력 500명 선발을 시작으로 대규모 여성 인력 채용을 본격화했다. 당시 이 회장이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늘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임직원 중 여성 비중은 2015년 국내 26%, 해외 54% 수준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난임 휴직제 운영,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증축, 모성보호실 확대 등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 임원 및 부서장 확대, 리더십 교육과 멘토링 지원 등 차세대 여성 리더 발굴 및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정책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했고, 2015년에는 기존 1년 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자녀가 영아기에 휴직 기간(출대 1년)을 모두 소진할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간을 늘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도 눈에 띈다. 모성보호 등록을 비롯해 모성보호 책자와 표식지급, 임부 차량 사내 주차 가능, 간식 제공, 태교 CD 대여, 태교·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출산선물 제공 등 임산부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산 이후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12년 10개의 어린이집 수를 지난해 13개까지 늘렸고 어린이집 정원도 1434명에서 2905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는 임산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육아를 위한 모유유축실도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업 최초로 생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모유유축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다.

삼성전자의 남녀 양성평등 주제는 인사 원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 지역 전문가를 선발해 파견하고, 외국어 생활관이나 해외 어학연수 등 장단기 어학연수 기회도 여성에게 똑같이 보장했다. 아울러 여성 해외 주재원 선발, 사내 강사나 신입사원 교육의 지도 등 여성 인력의 활동 영역을 크게 넓혔다.

남녀 임직원 모두 자기계발에 정진할 수 있는 제도로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학업이나 어학연수 등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만들었다. 자기계발 내용은 한정돼 있지 않으며, 근속 3년 이상 근무자는 고과에 상관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다. 어학공부나 학위취득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여행 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 창의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송영록 기자 syr@

난임 겪는 남녀 임직원에 시술비 최대 200만원

한화그룹 '일·가정 양립' 모토
아이 첫돌 될 때까지 야근금지
자녀 초교 입학 땐 1개월 휴가
여성인력 구성 TF '위드' 운영
정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화그룹은 전국 10곳에 차별화된 환경 및 보육 여건을 갖춘 친환경 어린이집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한화그룹은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 하나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핵심 여성 인력으로 구성된 TF팀 '위드(WITH: Women In Tomorrow Hanwha)'팀을 운영하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 2월 한화그룹 인재경영원에서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젊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와 여성 지원을 위한 WITH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한 계열사를 선발해 시상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은 여성 친화적 기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시행으로 여성 직원들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신 중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이가 첫돌이 될 때까지 야근을 금지하는 등의 탄력근무제를 도입, 업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 직원들은 제도 시행 후 혜택이 커졌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이 임신 후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즉시 핑크색 출입증과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물론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 10시까지 출근하거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1개월간 휴가를 내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매주 1-2회 가정의 날을 지정해 야근, 회의, 회식을 금지하고 정시에 퇴근토록 시행하고 있는 것.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난임(難妊)으로 힘들어하는 남녀 직원들을 위해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과 함께 연간 최대 3개월까지 임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한화케미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여성경영대상'에서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2015년 고용노동부 주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한화생명도 2016년 대한민국 여성경영대상 여가부장관상과 더불어 미국 GPTW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문'에서 2016-2017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한화그룹 계열사 가운데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8개 계열사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한화그룹은 또 전국 10곳에 어린이집을 운영, 35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워킹맘들의 갑작스러운 야근에도 아이를 보육할 수 있게 했다. 직장 내 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점이다.

한화직장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차별화된 환경 및 보육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1명당 원아 3-4명 수준으로, 법정 기준보다 보육교사의 수가 30-50% 추가 배치했으며, 간호 전문인력도 배치해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면적도 기준보다 15% 이상 확보해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마련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양성평등, 기업의 미래’ 기획은 **SAMSUNG**  **Hanwha** 와 함께합니다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나눔인성교육
희망편지쓰기대회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꾸무스따 까!
난 필리핀의 조슈아야!
너희들의 희망편지 기다릴게!

• 꾸무스따 까(Kumusta ka) : 안녕이라는 뜻의 필리핀어

희망편지로 조슈아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대회일시	2017년 3월 2일 ~ 5월 31일
참여방법	학교별 단체 참여 및 개별 참여 가능
시상내역	외교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MBC나눔 사장상, EBS 사장상, 굿네이버스 회장상 등
주최	굿네이버스
후원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MBC, EBS
문의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운영본부(02-6424-1643)

전국대회수상자는 조슈아를 만날 수 있는 해외자원봉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킹사이즈 침대 싱글로도 분리 '아르지안' 자유자재 등판 조절 영화감상에 딱이네



iloom

퍼시그룹은 봄 맞이 인테리어 가 구로 생활가구 전문브랜드 일룸이 직접 설계하고 제조한 모션베드 '아르지안'을 선보였다. 아르지안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의 안전까지 고려한 침대다. 이를 통해 숙면과 여가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침실 라이프를 제공한다.

트윈 모션베드는 독립적인 플랫폼을 갖춘 900폭 싱글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인 구성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킹사이즈의 일부 침대로도, 침대를 분리해 단독형 싱글 침대로도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침대 별로 등판과 다리판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다리가 자주 붓는 아내나 다리판 올림 자세, 코골이가 심한 남편은 등판 올림 자세 등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1500폭 킹사이즈, 1200 슈퍼싱글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침실 공간을 수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부들을 위해 TV 시청, 독서, 웹 서핑 등 서로 다른 취미 생

활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각각의 싱글 침대 사이에 헤파이나 높이 조절 사이드 테이블을 배치하면 간단한 브런치, 영화감상, 노트북 작업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아르지안 시리즈의 옷장, 서랍장, AV장 등을 함께 배치해 통일감 있는 분위기 속 숙면과 휴식에 최적화된 스마트한 신혼 침실을 완성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납형 헤드보드'에는 매립형 USB 충전단자가 내장돼 있다. 이를 통해 침대 위에서도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헤드보드의 선반이나 서랍장에는 자주 보는 책이나 잡지 등을 꽂아두기 편리하게 구성됐다. '천연 가죽 헤드보드'는 볼륨감 있는 침실로 연출할 수 있어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침대의 각도를 조절할 때는 지지판이 헤드 보드의 벽을 따라 움직이고 세이프 커버가 손 끼임을 방지해 어린 아이들과 반려견의 불의 사고에도 안전하다. 모션베드 하부가 일체형이 아닌 4개의 분리판으로 구성돼 정교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덴마크 리낙사의 모터를 사용해 각도 조절 시 소음을 최소화하는 품질력도 갖췄다.



나만의 공간

休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된다. 봄맞이 새 단장으로 집안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단순하게 '주거 공간'이 아닌 '자신만의 휴식 공간'으로 변화하며 자신의 개성을 반영해 공간을 꾸미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침실을 비롯해 집안의 인테리어를 직접 바꾸는 '셀프인테리어' 트렌드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가치소비를 결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이에 각 업체는 주력 인테리어 상품들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숙면·인테리어 두 토끼 잡는 '루나토' 세계 특허 '하이브리드 Z 스프링' 적용



ACE 에이스침대

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침실은 수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봄 맞이 집 단장으로 침실 인테리어와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침대는 침실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가구일 뿐만 아니라 어떤 매트리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을 결정짓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피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에이스침대는 고객들에게 편안한 수면공간을 제공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침대인 '루나토'를 선보였다. 루나토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에 진한 에슈컬러 우드로 포인트를 줘 고급형 침대로서의 외형을 갖췄다.

이러한 트렌드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매트리스의 수요 증가로 나타난다. 가치소비를 중시

하고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만족할 만한 품질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침대는 서로 다른 수면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의 수면 스타일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침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모두 좋은 매트리스를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에이스침대가 세계 특허를 취득한 '하이브리드 Z 스프링'으로 탄생한 '하이브리드 테크' 매트리스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침대공학연구소의 엄격한 품질테스트를 통과해 편안하고 안락한 숙면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Z 스프링은 한 개의 스프링이 연결형과 독립형의 장점을 모두 제공하는 새로운 타입의 스프링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며 가치를 인정 받았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침대는 앉았을 때와 누웠을 때의 체중 분포가 다르므로 반드시 직접 누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누웠을 때 몸과 허리를 잘 받쳐주는지, 위생적이고 청결한 사용이 가능한지, 침대 전문 브랜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 5중 레이어 설계 '메모리폼 매트리스' 합리적 가격·위생 관리 렌탈서비스 인기



coway

최근 봄 맞이 집 단장으로 침대를 바꾸기보다 매트리스만을 바꿔 분위기 전환을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기능적인 부분 외에도 디자인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트리스를 단순히 침구용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인테리어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코웨이의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 2중(CMFK-S01, CMFQ-S01)'은 침실 인테리어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코웨이의 렌탈 제도를 이용한 합리적인 가격, 위생 관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별성을 앞세워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는 웨이브 패턴으로 디자인적인 감각까지 살렸다. 여기에 실버 화이트, 에쉬 그레이 등의 색 조합을 통해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또 부드러운 감촉의 텐셀 섬유 3중직 니트 원단을 사용해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본래의

기능도 강점이다.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는 5중 레이어 구조로 편안한 숙면을 제공한다. 부드럽고 안락하게 몸을 감싸주는 컴포트 메모리폼, 탄탄한 정도로 신체를 받쳐주는 서포트 메모리폼을 비롯해 밀도, 경도, 두께가 다른 3가지 종류의 고탄성 폼까지 총 5중 레이어 구조로 설계됐다.

코웨이의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는 커버 교체와 철저한 위생관리 서비스도 특징이다. 코웨이의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를 렌탈하는 모든 고객들은 6년 렌탈을 기준으로 3년에 한 번 커버를 교체 받아 새 매트리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매트리스 렌탈 고객들은 4개월에 한 번씩 위생관리 전문가가 방문하는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7단계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숙면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한 서비스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 2중은 커버 교체와 위생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항상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 연출과 함께 편안한 숙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메모리폼 매트리스 컴포트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5mm기능성 쿠션 바닥재 봄집단장 유혹 친환경 인증 '큐피트' '큐티에' 벽지 인기



THE Space Creator 한화L&C

본격적인 봄을 맞아 집안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한화L&C가 봄맞이 집단장 리모델링 필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바닥재와 벽지'를 제안했다.

한화 L&C는 지난달 홈쇼핑을 통해 최초로 '바닥재+벽지' 패키지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패키지에 포함된 바닥재 '소리지움'은 4.5mm이상의 프리미엄 기능성 쿠션 바닥재로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쿠션감이 좋은 만큼 남다른 보편감을 경험할 수 있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밝은 톤의 컬러와 오크 무늬의 디테일을 살린 디자인의 '레이니오크'와 중성적인 색감의 우드톤과 그레이를 조화를 이뤄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 '뉴트럴 파인' 2가지 패턴은 가장 인기가 높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L&C는 2015년부터 모든 PVC류 바닥재 제품에 '올버진(All-Virgin)' 원

료만 사용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버진' 전략은 재활용 원료인 '스크랩(기존 PVC) 바닥재를 재가공해 만든 재활용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함께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본격 론칭한 한화L&C의 실크벽지 '큐피트(Qpid)'와 합지벽지 '큐티에(Qtie)'도 봄을 맞이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제품 모두 환경마크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의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성능을 인정 받았다.

파스텔 컬러에서 묻어나는 은은함과 클래식한 느낌을 살린 실크벽지 '큐피트(Qpid)' 총 30개 패턴·120컬러를 출시했다. 합지벽지 브랜드 '큐티에(Qtie)'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연선된 40개 패턴 150여컬러로 출시됐다.

한화L&C 관계자는 "벽지와 바닥재는 함께 교체했을 때 인테리어 효과가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바닥재와 벽지를 함께 교체하는 경우 조화롭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스타일 반영한 주방가구·불박이장 '노빌레' 소파, 프리미엄 황소 통가죽 사용



HYUNDAI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올봄 여름(S/S) 시즌에 출시하는 신제품들의 콘셉트를 '플러스 프리미엄(Plus premium)'으로 정했다. 현대리바트 측은 "디자인부터 소재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미니멀리스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 디자인과 내구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는 유려미인 디자인과 컬러를 적용한 주방 가구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 리바트키친의 '벨린(1500G)'은 국내 브랜드 주방가구 최초로 나뭇결무늬의 블랙도어를 적용했다. 반광소재의 블랙 표면재는 무광의 포근함과 유광의 세련된 스타일을 모두 담고 있다. 리바트키친의 '베를린(1600G)'의 경우는 국내 브랜드 주방가구 최초로 '투플라이(2ply) 폴리프로필렌' 가죽 패턴을 적용해, 시각과 촉각 적으로 가죽의 질감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리바트가 최근 출시한 '노드' 불박이장은 내부 모듈 설계부터 하드웨어까지 최고의 수납을 위해 기획된 제품이다. 독일 헤티사의 '템핑 언더레일'을 적

용해 부드럽게 여닫으며 레일의 고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랍은 독일 레놀릿사에서 생산한 표면재로 무늬목에 가까운 질감을 표현해 불박이장의 포인트가 된다. '노드' 불박이장의 강점은 수납 모듈이다. 장롱, 서랍, 화장대, 행거를 노드 불박이장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리바트는 우수한 내구성, 차별화된 위생성을 지닌 친환경 엔지니어스톤을 적용한 식탁도 출시했다. '뉴마드리드'는 누적판매 1만 세트인 리바트 대표 식탁 '마드리드'에 친환경 신소재인 '엔지니어스톤'을 접목한 제품이다. 엔지니어스톤은 99% 순도의 석영에 첨단 기술이 더해진 신소재로, 박테리아와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며 수분흡수율 제로로 자랑한다.

이밖에 리바트는 '좋은 소파는 좋은 가족에서 비롯된다'라는 모토 아래 전 과정을 이탈리아에서 진행하는 다니(DANI)사 가죽 제품을 출시한다.

'노빌레' 소파는 DANI가죽 라인업 중에서도 프리미엄으로 손꼽히는 황소 통가죽을 사용했다. '노빌레' 소파는 내피, 외피를 분리하지 않고 통가죽을 그대로 사용해 두께가 2-2.2mm로 두꺼워 내구성이 뛰어나다.

‘출마·불출마’ 엇갈린 大選테마주... ‘차익실현’ 급락도

3월 셋째 주(13~17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67.23포인트(3.20%) 오른 2164.58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2160포인트를 넘긴 건 2015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의 일이다. 탄핵 인용 후 첫 거래 주장을 맞아 외국인이 1조5201억 원으로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기관은 1조1910억 원, 개인은 5786억 원을 순매도했다.

베스트&워스트 3월 13~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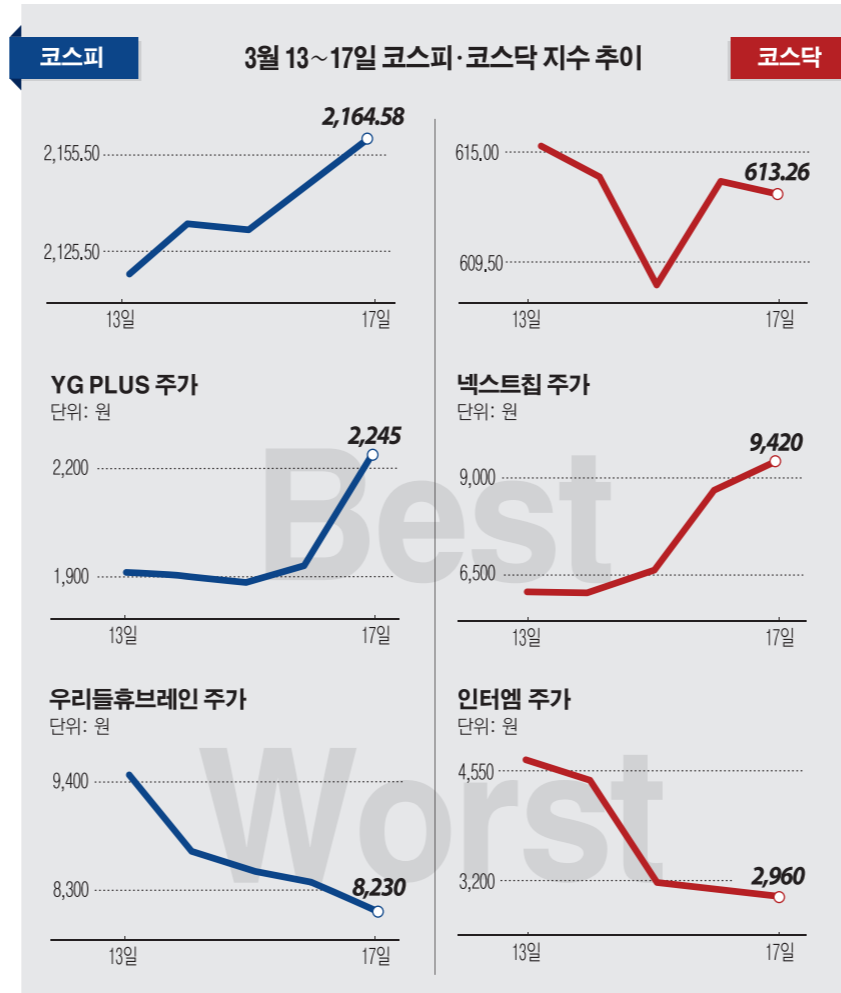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탄핵 인용에 따른 정치 리스크 해소로 전주 대비 1포인트(0.16%) 오른 613.26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717억 원, 545억 원을 순매수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투자자는 2059억 원을 순매도하며 ‘팔자세’로 전환했다.

◇YG PLUS, 네이버 톱 큰 투자에 ‘방긋’ = YG PLUS는 지난 한 주간 16.62%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닥 상장 기업 와이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 PLUS는 NAVER(네이버)의 1000억 원대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지난 17일 하루 동안 15.72% 급등했다. 와이저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제3차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로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 네이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분을 9.14%로 2대 주주가 된다.

정책 테마주의 주가급등 현상도 포착됐다. 전기장비업체 삼화전자는 지난 주 16.54% 상승했다. 이 회사는 세종시 수도 이전 공약 관련 루머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라케이아이씨는 새만금 테마주로 분

‘갤럭시노트8’과 ‘갤럭시S9’에 듀얼카메라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다. 삼성전기 주가는 지난 17일 전일 대비 3.59% 상승하는 등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해 지난주에 단 12.76% 급등했다. 이외에도 동부건설(16.00%), 우신시스템(15.97%), 아티스(14.68%), 서울식품(12.48%)이 상승했다. ◇현대시멘트, ‘3세 경영’에 투자심리 위축(?)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단기간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차익 실현 움직임에 일제히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우리들휴브레인으로 한 주간 23.80% 떨어졌다. 이 종목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련주로 언급됐다. 지난 9일 21.20% 급등하며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내 급락해 투



YG PLUS, 네이버 1000억원 대 투자 소식에 16.62% 올라 삼화전자 16.54%·나라케이아이씨 14.65% 정책테마주 ‘들쭉’ ‘문재인 테마주’ 우리들휴브레인·DSR제강 20% 이상씩 빠져

류되며 14.65%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원 부의장은 지난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을 서해안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련 테마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업체 한은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수·합 병(M&A) 모멘텀이 부각되며 한 주간 14.35% 급등했다.

송원산업은 올해 1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 증권업계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 지난주 13.37% 상승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송원산업은 올해 7월 연간 3만 톤의 윤활유 첨가제용 산화방지제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내년에는 미국 ECC의 신규 가동으로 물량과 가격상승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향후 출시할

자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크게 하락한 DSR제강도 대표적 ‘문재인 테마주’로 거론돼 왔다. 이 종목은 지난주 21.34% 하락했다. 모회사 DSR도 같은 기간 11.30% 떨어졌다.

현대시멘트는 경영 리스크가 작용하며 한 주간 9.52% 급락했다. 최근 현대시멘트 인수에 성공한 한일시멘트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허정성 명예회장에서 허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기호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 후 허 회장의 지분율은 9.47%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외이사 영입설로 급등하던 보혜양조는 지난 주 8.88% 하락했다. 이외에도 한익스프레스가 실적 부진 전망에 10.27% 급락하는 등 아이콘트롤스(-10.75%), 에넥스(-9.52%), 세화아이엠씨(-8.87%), AJ네트웍스(-8.45%)가 하락했다.

최두선 기자 sun@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17일	주가등락률 (%)
YG PLUS	131	1,925	2,245	16.62
삼화전자	34	2,025	2,360	16.54
동부건설	228	9,440	10,950	16.00
우신시스템	117	5,510	6,390	15.97
아티스	46	2,010	2,305	14.68
나라케이아이씨	46	2,355	2,700	14.65
한은시스템	5,189	8,500	9,720	14.35
송원산업	448	16,450	18,650	13.37
삼성전기	4,952	58,800	66,300	12.76
서울식품	52	3,445	3,875	12.48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17일	주가등락률 (%)
네트웍스	254	5,920	5,420	-8.45
세화아이엠씨	72	6,650	6,060	-8.87
보혜양조	133	1,520	1,385	-8.88
에넥스	171	3,150	2,850	-9.52
현대시멘트	366	24,150	21,850	-9.52
한익스프레스	68	63,300	56,800	-10.27
아이콘트롤스	202	27,450	24,500	-10.75
DSR	207	14,600	12,950	-11.30
DSR제강	178	15,700	12,350	-21.34
우리들휴브레인	152	10,800	8,230	-23.80

※자료: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17일	주가등락률 (%)
넥스트칩	127	5,980	9,420	57.53
파인디앤씨	119	4,300	6,350	47.67
서울제약	100	9,470	13,500	42.56
대성창투	139	2,445	3,470	41.92
TPC	115	6,370	8,940	40.35
솔본	175	4,700	6,390	35.96
아이리버	137	3,335	4,400	31.93
대성엔텍	151	1,170	1,520	29.91
특수건설	61	4,770	6,150	28.93
DSC인베스트먼트	136	6,180	7,750	25.40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17일	주가등락률 (%)
비에이치아이	155	6,930	5,950	-14.14
대신정보통신	73	2,220	1,890	-14.86
버후엔텍	33	2,245	1,890	-15.81
바른손	140	12,100	10,100	-16.53
디에스케이	150	13,850	11,550	-16.61
큐브스	52	2,315	1,900	-17.93
스파이테크놀로지	29	4,420	3,510	-20.59
에치디프로	64	13,400	10,450	-22.01
국일신동	32	4,005	2,915	-27.22
인터엠	62	4,720	2,960	-37.29

※자료: 에프앤가이드

◇넥스트칩·파인디앤씨...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요동’ =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됐다.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보안장비업체 넥스트칩이다. 이 회사는 지난 16일 상한가(29.92%)에 등극하는 등 한 주간 57.5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넥스트칩은 자율주행차 관련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디스플레이 상장기업 파인디앤씨 역시 드론 연구개발 사업이 부각되며 지난 주 47.67% 상승했다. 이 회사는 2월 중순에도 4차 산업혁명 수혜 종목으로 분류돼 41.9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2월 초 반기문 테마주

근 재경수고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돼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루머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창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주와 연관되며 지난 주 41.92% 상승했다. 서병문 사외이사 와 문 전 대표의 인연도 부각되며 정치 테마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특수건설(28.93%), DSC인베스트먼트(25.40%)가 상승했다.

◇인터엠,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 결정에 ‘우수수’ = 지난주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은 인터엠으로 한 주간 37.29% 하락했다. 테마주 요인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결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엠의 주가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난 15일 하루 동

넥스트칩 57.53%·파인디앤씨 47.67%... 4차 산업혁명주 ‘요동’ 정치테마주 희비... ‘김진태 등문’ 서울제약 42.56%나 오르고 황교안 대선 불출마에 인터엠 37.29%·국일신동 27.22% 빠져

영향으로 일주일간 54% 이상 급락하는 등, 테마에 따라 큰 폭의 주가 등락을 보이고 있어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업체 TPC도 인공지능(AI) 로봇과 3D프린터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 주간 40.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의료장비 및 서비스 기업 솔본(35.96%)은 솔본인베스트먼트, 인피트헬스케어 등 계열사 중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서울제약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관련 테마주로 주목 받아 지난주 42.5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제약 김정호 대표 는 김 의원과 친한 성수고 동문이며, 최

안 29.97% 하락했다. 또 다른 황교안 테마주로 불린 국일신동 역시 지난 한 주간 27.22%의 하락률을 보였다. 국일신동의 종가 2915원은 지난달 14일 종가 6480원 대비 55.01% 하락한 수치다.

스파이아테크놀로지는 실적 악재로 매도세가 몰렸다. 주가는 한 주간 20.59% 하락했다. 큐브스는 갑자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17.93% 하락했다. 큐브스는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하는 갑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15일 장중 주가는 1780원까지 떨어지며 52주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에치디프로(-22.01%), 디에스케이(-16.61%), 바른손(-16.53%), 버후엔텍(-15.81%), 대신정보통신(-14.86%), 비에이치아이(-14.14%)가 하락했다.

최두선 기자 sun@

창조, 융합, 연결, 확장 등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2050년

STATE OF THE FUTURE 세계미래보고서 2050

미래사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박영숙·제물 글렌 지음 | 376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2050년을 읽으려면 먼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세계미래보고서 2050》은 신기술과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지금까지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는 에너지, 인공지능, 직업, 우주개발, 수명연장 기술 등 주로 소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예측을 소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를 선택했다. 창조, 문제 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등이 그것이다.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는 이들 키워드로 수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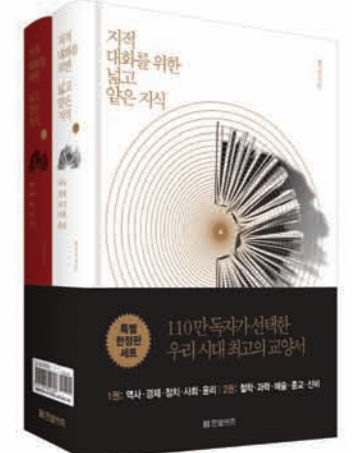
문의: 02-3156-3824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110만 독자가 선택한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양장본 세트(전 2권) + 에코백



채사장 지음 | 1권 376쪽 2권 372쪽
한빛비즈 | 값 32,000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콘셉트로 재해석한 표지와 한정판으로 제작된 ‘지대넓얕’ 에코백으로 소장 가치를 높인 특별한정판!

2017년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대넓얕》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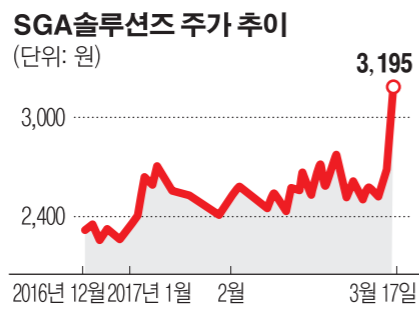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은 개별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계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통시적으로 알려준다. 이 거칠고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본 세계사는 물론 경제 원리, 정치 이슈, 사회문제들이 한 방에 명쾌히 이해된다.

※ 한정수량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재고 소진 시 종료됩니다.

문의: 02-325-5506

SGA솔루션즈 'FIDO 클라우드' 선두주자

삼성·구글 등 200여기업 참여
'글로벌 생체인증' 규격 도입
스마트카에서 기업보안까지
상용화면 적용분야 무궁무진
연내 출시 4차 산업혁명 주도



통합보안솔루션 기업 SGA솔루션즈가 연내 생체인증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놓는다.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인 이른바 '파이도(FIDO) 인증 클라우드' 사업으로 보안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GA솔루션즈는 20일 파이도 인증을 클라우드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도란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2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온라인 환경에서도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국제규격 협회다.

최근 비밀번호 방식과 일회성비밀번호 생성기(OTP), 문자인증 방식 등의 해킹이 급격히 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이미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GA솔루션즈 관계자는 "파이도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자율주행

차(스마트카), 기업 보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파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동차 기술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문이나 홍채인식, 정맥인식 등 생체인증 수단을 지닌 핸드폰이 있다면 자동차 키를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SGA솔루션즈는 이미 상반기에 머신러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SGA솔루션즈가 개발 중인 AI 관련 신제품은 회사측의 보안관계 기술에 수년간 쌓아온 서버보안 로그와 엔드포인트보안 로그 및 악성코드 분석을 통한 혁신적 융합보안 제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통합보안 역량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지난해 서버보안 및 인증 기술을 활용해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를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하

기도 했다.

자회사인 SGA임베디드는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융합보안시범사업 중 스마트홈과 가전분야에 선정됐다.

SGA임베디드는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솔루션 공급과 함께 IoT기반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대감에 넥스트칩, 아남전자, 모바일어플라이언스, TPC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

SGA솔루션즈는 올해 AI보안, 파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보안솔루션 시장에 한발 앞서가게 된다. 특히 보안 전 분야에 걸친 계열사 시너지가 예상된다.

SGA솔루션즈는 두 서비스 모두 국내 최초의 서비스로 글로벌 보안업체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시장 확대에 따른 보안 솔루션도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hura@



에이아이브레인의 스마트폰 로봇 '타이키'. 사제제품 한국전자인증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나온다 에이아이브레인 "연내 상용화"

스케줄관리 개인비서 '아테나' 자율주행·안면인식 기능 적용
사용자와 대화·서류 전달 가능
스마트폰용 '타이키' 내달 출시

달할 수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정보제공, 대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테나는 가정용 또는 회사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에이아이브레인은 스마트폰 로봇 타이키도 올해 4월 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선보이는 것이다. 타이키는 보고 듣고 말도 하고 놀면서 아이들 스스로 지능 계발을 하도록 돕는 교사 겸 친구 같은 기능을 갖췄다. 국내에서는 영어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린 아이가 타이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금 영어로 대화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전자인증의 출자법인인 인공지능 전문기업 에이아이브레인(AIBrain)이 올해 자율주행과 안면인식 기능을 접목한 가정용 홈 서비스 로봇을 상용화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 로봇 '타이키(Tyche)'의 출시도 앞당긴다.

에이아이브레인은 올해 회사 업무용 및 가정용 홈 서비스 로봇 '아테나(Athena)'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아테나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화형 개인형 로봇이 콘셉트다.

회사 관계자는 "아테나에 자율주행과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테나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 이동하면서 개인비서 또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애품을 인식하는 한편, 로봇에 서류 받침대를 놓아 서류를 사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정보제공, 대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테나는 가정용 또는 회사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에이아이브레인은 올해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과 MOU를 맺고 딥러닝(Deep learning) 자연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과의 다양한 국책과제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화 상대의 감성 추론 및 판단이 가능한 감성지능 기술 연구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BMW파이낸셜 회사채 발행 1000억원 규모 수요예측 성공

BMW계열 리스 할부 금융업체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무난히 투자자를 확보했다.

20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BMW파이낸셜은 오는 23일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시행한 수요예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BMW파이낸셜 회사채에는 2000억 원 가량의 주문이 몰렸다. 신용등급이 'A+'로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무난히 투자자를 확보했다. BMW파이낸셜은 최대 18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리스 비용과 기타 대출금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

에스에프씨, 뮤지컬제작사 '오디컴퍼니' 지분인수

태양광 및 구강용해필름 전문기업 에스에프씨가 뮤지컬 제작사 '오디컴퍼니(주)' 지분을 인수한다.

에스에프씨는 20일 사업 다각화를 위해 90억 원을 투자해 국내 1위 뮤지컬 제작사인 오디컴퍼니 지분을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 후 보유 지분율은 50%다.

오디컴퍼니는 공연 예술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이다. 지난 2001년 창립 후 뮤지컬 제작에서부터 해외 작품 라이선스 계약 체결까지 국내 뮤지컬 문화를 선도하며 대표 뮤지컬 제작사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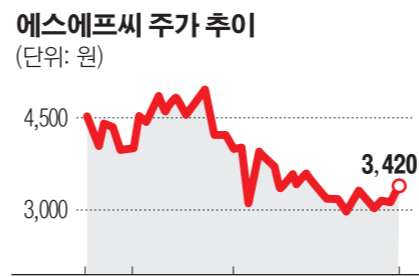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이사가 국내 최초 리드프로듀서를 담당한 'Holler If Ya Hear Me'와 '닥터지바고'는 각각 2014년, 2015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

공연·예술 분야로 사업 다각화
90억원 투자...지분 50% 확보

연됐으며 국내에서는 '지킬앤하이드', '드림걸즈', '닥터지바고' 등을 선보인 바 있다.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에 나선 오디컴퍼니는 브로드웨이 배우들로 구성된 '지킬앤하이드 월드투어'를 작년 12월부터 국내에서 공연 중이며 다음 달 4월 개봉 예정인 '드림걸즈' 투어 공연을 제작 중이다.

에스에프씨 관계자는 "태양광 필름 사업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업의 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성장성이 높은 콘



텐츠 사업영역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회사로 나아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비전을 'Well-life Company'로 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생활문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시중 기자 ssi@

적자로 돌아선 '하이즈항공' 신축공장 가동, 손해본 장사

항공기용 부품제조 업체인 하이즈항공이 매출 원가율이 증가하면서 적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축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이 갑질가랑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른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즈항공은 지난해 매출 327억 원으로 전년도 307억 원과 비교해 6.5%가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16억 원이나 발생하면서 전년도 영업이익 45억 원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매출원가율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즈항공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74%, 2015년 24%로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출총이익이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6%로 급격히 하락했다. 회사가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유분이 600만 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공장신축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밝혔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하이즈항공이 지난해 매출원가와 연결되는 감가상각비는 32억 원으로 전년도 15억 원과 비교해 갑질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영업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도 적자전환의 이유가 됐다. 하이즈항공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은 10%로 전년도 9%와 비교해 1%포인트 증가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바비인형'과 손잡은 손오공... '마텔샵' 공식오픈

세계 최대 완구회사 '마텔', 손오공 지분 11.99% 확보 최대주주로

마텔의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손오공이 공식 온라인 쇼핑몰 '마텔샵(www.mattelshop.co.kr)'을 오픈하고 마텔의 국내 완구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손오공은 콘텐츠 개발사 초이락컨텐츠파트너(이하 초이락)의 인기 완구 브랜드 헬로카봇, 터닝메카드, 소피루비를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손오공샵'에 이어 '마텔샵'까지 2개의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확보했다.

손오공은 지난해 말 마텔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지분 인수 동의 및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피

셔프라이스, 메가블러, 바비, 핫휠 등 마텔의 주요 브랜드들을 판매하게 됐다.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회사 마텔에 손오공 보유 지분 11.99%를 넘김으로써 마텔이 손오공의 최대주주가 되게 하고, 자신은 2대 주주로 남았다. 손오공 관계자는 "마텔의 지분 인수 확정 전 손오공 지분 인수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3개 기업이 지난해 초부터 최 회장에게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손오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손오공의 미래를 생각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마텔의 바비 인형. 뉴스시스

토피드, 관리종목 이슈 탈출 "바이오 집중"

최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토피드가 흑자전환하며 4년 연속 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했다.

토피드는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 약 6억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에 따른 손익구조 개선으로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며 "전년도는 기존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이룬 해였다면 올해는 관리종목 탈피를 기반으로 바이오 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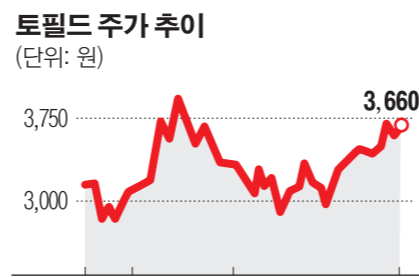
손익구조 개선...흑자전환 성공
천원 원료 백신·계약 진출 계획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피드는 작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안용준 교수팀과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집먼지 진드기 단백질 분해제, 모기 퇴치제 개발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 식약처 허가를 받는 대로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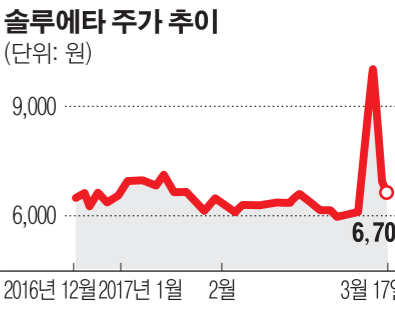
토피드 관계자는 "집먼지 진드기 단



백질 분해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천연원료 제품으로 아토피 피부병 예방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향후 천연물을 이용해 백신, 제약 관련 사업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시중 기자 ssi@

박동원 대표 文캠프 위원회 사임 솔루에타 투자자 '천당→지옥'

일자리위원회 합류 사흘만에...
작년 '대량해고' 지적 부담 작용
1만650원 찍고 6960원으로
40% 급등락 재미들 피해 속출



문재인 대선 캠프 참여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코스닥 대표의 반복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닥기업 솔루에타의 대표는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사임했다. 이 때문에 주가는 40% 급등락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솔루에타는 "대표이사 박동원이 일선상의 사유로 더문캠(문재인경선캠프) 일자리위원회 위원직에서 이날 사임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솔루에타는 박 대표가 더문캠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50%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16일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고갔다. 고점 매수 투자자라면 40%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수백억 원의 시가총액이 며칠 사이에 급등락 했다. 15일 1만650원 최고가를 기록한 솔루에타 주가는 16일 종가 기준 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솔루에타 박 대표는 일자리 위원회 참여 소식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한 박 대표가 정작 자신의 회사에서는 최근 1

년 동안 40% 이상의 직원을 대량 해고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솔루에타는 2016년 1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가 21명 이었으나 2016년 11월 기준 124명으로 급증했다.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검증은 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란에 본지는 더문캠 후보 캠프 쪽에 15일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을 미루다 이날 갑작스러운 사임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캠프의 인사 영입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일부 남성들로부터 이른바 '매갈' 성향으로 불리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의원을 캠프 여성 본부장으로 영입해 논란이 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해 또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광두 교수는 수조원의 헬스케어 기업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차관 지원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인물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SAMSUNG



2017 CES 혁신상 수상

상부 콤팩트워시로 소량세탁도 삶음세탁도 서서 편하게
하부 애드워시로 대용량세탁은 안정적인 아래 위치 그대로
애드윈도우로 빨래도 세제도 세탁중 언제든지 추가

세탁기에 바라는 모든 것을 담아 올인원세탁. 완성

삼성 플렉스워시



WR26M9970KV1 에너지 소비효율1등급